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0 1982년 12월 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December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EC 8 1982

제7회 사진대회 시상식

특상은 캐네디안에게

사진배운지 8개월만에 영광

◆특당작 「미녀의 미소」앞에 선 미셸·리버노시씨. 몬트리얼에서 달려온 리버노시는 부상으로 니콘카메라과 대형트로피를 안고 있다.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8개월, 현상기술을 배운지는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내가 이런 대상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않았다."

몬트리얼에서 온 미셸·리버노씨는 4일 웨이사이드화랑(Yonge St.)에서 열린 본사와 한인사진협회가 공동주최한 제7회 사진대회의 시상식에서 특등상을 받은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사진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사진가들과, 한국일보 김명규사장을 비롯한 직원과, 사진협회 간부진과 교포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에 앞서 김사장은 축사를 통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사진대회에는 전례없이 많은 34명으로 부터 127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대회 처음으로 정식 전시장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더욱 뜻깊은 일은 수명의 캐네디안들이 참가, 이 대회가 교포들만의 대회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사진대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미녀의 미소(박은희 모델)"라는 작품으로 특상을 탄 화물회사 세일즈맨 미셸·리버노씨는 대형트로피와 함께 나이콘카메라1대를 부상으로 받았다.

몬트리얼교포 윤영돈씨의 소개로 사진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는 리버노씨는 "생전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내년에는 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진수업을 받겠다"면서 시종일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등은 정효생씨의 「꼬마와 단풍(이현종(9)양 모델)」으로 부상 캐메라 후래쉬, 2등은 이웅규씨의 「가을의 미녀(박은희 모델)」로 부상 카메라 삼각대를 차지했고, 일본계 캐네디안 마세이씨가 3등으로 부상 카메라 백을 받았다.

가작은 리버노, 이강헌, 마세이, 쿠라모치씨의 4작품이 선정, 입상작품 8작중에 외국인 작품이 5점이나 포함되어 있다.

전경수 사진협회장도 심사소감을 통해 "이번 대회에 외국인들이 많은 상을 탄 이유는, 그들의 작품이 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다. 심사때는 촬영자의 이름을 무시하고 작품위주로 선정했다. 교포아마추어 작가들도 더욱 분발, 내년에는 우리 교민중에서 특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10월2일 토론토 보이드·파에서 미녀모델(박은희, 함승희, 허윤정, 이현종)들과 단풍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회 사진촬영대회의 작품 출품 기한은 지난 11월10일 이었다.

기한후에 최재권씨등의 훌륭한 작품들이 제출되었으나, 시일때문에 입상대상에 들지 못했다.

사진대회 입선작품들은 사진협회 임원들의 록키산 촬영사진들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웨이드사이드화랑에서 전시된다.

화랑 전화번호 886-1667

◆제7회 사진대회 입상자들. 왼쪽부터 이강헌옹, 마쎄이씨(일본계 캐네디안), 리버노시씨, 정효생, 이웅규씨.

쌍용, 캐나다석탄 채굴

전량 한국에 공급키로

(서울 7일=연합) 쌍용그룹의 방계회사인 주식회사 쌍용은 최근 캐나다 석탄광 개발사업에 착수, 멀지않아 캐나다의 유연탄을 한국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은 지난 10월 캐나다의 데이비드·미네랄스사(David Minerals Co.)와 합작회사 계약을 체결, 브리티시·콜롬비아의 뱅쿠버와 프린스·루퍼터 부근에 있는 윌로·크릭광산(Willow Creek Mine)의 독점채굴권을 획득했다.

쌍용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윌로·크릭광산의 석탄 매장량은 5천만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쌍용은 내년에 30만톤, 84년부터는 매년 1백만톤을 채굴할 계획이다.

쌍용이 채굴하는 석탄의 전량은 한국으로 수송되어 60%는 쌍용양회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쌍용은 윌로·크릭광산채굴을 위한 합작투자회사에 2천만달러 상당의 자본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 석유탐사 확대

캐나다등 11개국

(서울4일=연합)한국은 현재 [illegible]에 국한되어있는 해외석유탐사를 캐나다등 11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11개국가는 말레이지아·태국·인도와 앙골라·가봉·콩고·나이제리아등 아프리카국가와 베네주엘라·아르헨티나·콜롬비아등 남미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국가의 석유탐사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관·민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며, 탐사여부에 따라 정부는 현지에 합작회사 설립을 권장할 방침이다.

맥주값 또 올라

24병에 $12.90

맥주값이 또 오른다.

다음주 16일부터 24병들이 맥주 한상자에 60센트가 올라 $12.90이 된다.

맥주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브루어즈·리테일의 웨어하우스 대변인 로버트·울벳씨는 수송비, 노동비등이 맥주값 인상의 요인이 있다고 5일 밝혔다.

3개월간 2번째로 인상된 새 맥주값은, 6병들이 $3.80, 12병 $7.85이며, 1병에 10센트씩 디포짓해야 한다.

학교휴일 연9일로 단축

문교부 새 학사일정 발표

온타리오주의 각급학교는 지금까지 13일까지 허용된 교사활동날(P.A.Day)을 9일로 줄여, 내년부터 학생들이 교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

4일 새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하면서, 스티븐슨문교장관은 PA데이를 줄인 이유가 교사들의 세미나, 학업성적평가, 교과과정재편성을 위해 설정한 PA데이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쓰인다고 학부모, 교육위원, 심지어 교사자신들까지 불만을 표시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로 발표된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11일 참전용사의 날을 학교공식 휴일에서 제외한다. 이는 캐나다군당국이 오래전 부터 요청해 온 것이다.

◆3월14일직후 1주를 중간 겨울방학으로 고정시킨다. 지금까지는 각 스쿨·보드가 1월1일 이후 6월 학기가 끝나기까지 아무때나 5일간을 지정했었다.

◆각 학교가 갖고 있던 기말시험면제 재량권을 없앤다. 지금까지 각 학교는 학기내에 해당 과목에서 최소 1회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는 기말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었다.

◆스쿨보드가 별도의 규정을 세우지 않는 한 교사들은 시험날에도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해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2주간의 크리스마스 휴일을 갖는다. 2주간에는 10일의 등교일과, 주말4일 이 포함된다.

◆시험날수를 15일로 제한한다.

"자원풍부 너무 믿지말라"

미래학자 허먼·칸 캐나다인에 경고

미국의 경제가 안정된다고 해서 캐나다경제가 뒤따라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저명한 미국의 미래학자 허먼·칸씨가 2일 주장했다

캐나다 투자기금연구소의 초청으로 토론토에서 강연을 가진 허먼·칸씨는 "캐나다인은 많은 고통없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이며 아마도 캐나다는 다른 국가보다도 고통에 대한 저항감을 더욱 심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허먼·칸씨는 정부나 기업의 경제, 정치, 군사문제에 대한 협의를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헬슨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칸씨는 "캐나다가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는 믿음때문에 심리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집중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문제만 하더라도 캐나다인은 미국인만큼 심각하게 콘트롤하느라 애쓰지 않은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11 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illegible] 한인신용조합 Tel 533 9387~8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redacted]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판매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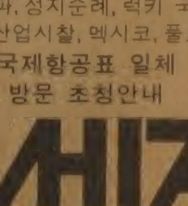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1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정영수태권도 아카데미

사범 정영수
魂
546A ST. CLAIR AVE. W.
TORONTO M6C 1A5
☎ : 652-0000 (오후4시30분이후)
●1공수투전여단 태권도사범
●1980년 경기도 태권도협회 선정 최우수 지도자상
●8세에 태권도 입문
●해군 해병태권도 대표선수<한국최강팀>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선발등, 전국규모 시합다수입상.
●중앙대학교 사범
●은광여고 사범
—학력—
●양정 중·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세경영대학원

태권사범 현각 정 영 수

IATA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단체 매주 출발
〈CP. JAL. KAL〉
*동남아지역 BUSINESS 특별요금
*세계명소 단체관광
〈구라파, 성지순례, 럭키 국립공원, 하와이 모국산업시찰, 멕시코, 풀로리다〉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이민, 방문 초청안내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창범
R) 492-7525
IATA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토요일 아침9시부터 1시까지는 나이도 성별도 잊고 오직 배우는데만 전념케 된다는 Y노인영어교실 학생들. 지난해에 1개반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4개반 120여명으로 늘어났다.

날로 커지는 Y노인 영어교실

1년만에 4개반 120명 확보

"나이가 들은 탓인지 암만 외워도 자꾸 까먹지요. 그래도 토요일만 기다려집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9시부터 오후1시까지 블루어와 크리스티의 빅포드 파·하이스쿨에는 50대이상의 한인 남녀 130여명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모여든다.

이같이 많은 한인노년(?)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는 교회이외에 유일한 곳.

한인 YMCA가 빅포드·파·스쿨의 교실을 빌려 실시하는 노인영어교실의 학생들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4개반으로 나뉜다.

ABC기초반 부터 손자들과 대화를 다소 나눌줄 아는 사람들의 고급반까지의 공통된 특징은 결석자가 거의 없다는 것과 여성 학생들이 많은 것(3분의 2가 여성)

노년학생중에는 직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쇼핑을 하거나, 손자들과 어울릴때 답답함을 덜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노인은 "혼자서 서브웨이를 타고 와서 한국서도 못가졌던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는데 도전을 느낀다"고 했다.

"캐나다에 온 뒤 유일한 낙"이 Y영어학교 다니는 것이라는 K할머니는 "손자와 같이 손잡고 왔다 손자는 한글반에 들여보내고, 나는 영어반에 들어옵니다. 생전 다시는 학생이 돼 볼 수 없을줄 알았는데, 조금씩 익혀간다는게 여간 즐겁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귀한 배움인 탓인지 노인학생들의 태도는 활발하다.

준비해온 것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져 당황하기도 한다는 최상급반의 정호영(UT학생)선생은, 아침에 만나면 먼저 학생들이 영어로 인사를 걸어온다고 전했다.

영어와 한국말 두가지를 섞어쓰며 가르치는 Y영어 교사중에는 수잔·레젝(25)이라는 미국인도 끼여있다. 스탠포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수잔양은, 한국에서 3년간 연대, 고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인 가정에서 살은 탓으로 한국말을 쓰고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각자 음식을 한접시씩 준비해와 푸짐한 잔치가 될 18일 전체 학생의 크리스마스·파티를 앞두고 〈사이렌·나잇〉, 〈오·홀리·나잇〉을 배우는 것도 즐겁지만, 휴식시간에 〈월츠〉를 배우는 것도 흥겹다.

11시반 휴식시간이 되면 약15분간 김용순씨의 지도로 전체학생이 복도에서 체조로서 몸을 풀고, 댄스를 배운다. 수줍은 할머니가 짝과 손을 잡기 어려워 비키자, "손 안잡을분들 여기 오지 마세요" 소리치는 할아버지.

배우는 시간만은 나이도, 성별도 무너진다.

연령제한 없고 등록금, 수강료는 전부 무료.

등록은 수시로 Y 김창열총무(536-1166)이나 매주 토요일 빅포드·파 하이스쿨에서 접수된다.

같은 장소에서 Y한글학교도 열리므로 손자를 데리고 나오기 안성맞춤이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25>

출발 ⑥

창은 불안에 떨며 범죄조직에 電話를…

원장실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트라이앵글—아까 그자는 분명히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다. 그는 트라이앵글(3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거기서 그에게 손을뻗어온 것이다. 그말을 듣는 순간 그는 위기를 느꼈었다. 그것은 지난 9년간의 치과의사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것 같은 충격을 그에게 안겨주고 있었다. 홍콩에 있는한 트라이앵글의 마수를 피할수는없다. 아니, 세계어디를 가도 그 마수에서 벗어나는것은 어렵다. 그들은끝까지 따라와 숨통을 끊어놓으려들것이다.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 요구를 들어주든가,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우든가.

10개사단 병력과 맞먹는 대원을 거느리고있는 트라이앵글과 맞서싸운다고 생각하자 그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싸우기도 전에 피로감이 먼저 엄습해왔다.

트라이앵글—그것은 뿌리깊은 역사를 가진 화교범죄결사이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있는 화교사회에 거미줄 같은 연락망을두고 암약하고있는 이른바 중국인 마피아단은 전세계 44개 지부에다 10만에 육박하는 지하조직원을 거느리고있는 방대한 범죄단체인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은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있으며 자기들의 사업에 방해가되는 사람은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데 특히 그 수법이 잔인무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을정도다.

그들은 마약, 밀수, 매음, 투기, 도박등 가장 악질적인 사회악으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손을 대고있는데 특히 마약이 대종을 이루고있으며 1970년대초까지 악명높은 프렌치커넥션(프랑스마약밀수단)이 붕괴된후로는 전세계 마약공급을 도맡다시피 하고있다.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격이다. 일단싸움을 시작하면 이쪽이 쓰러질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 그 싸움이 1년이 될지 10년이될지, 아니면 2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살아있는한 싸워야하는 것이다.

그 싸움이 싫으면 협력해야 한다. 그들과 한번 손을잡으면 발을 뺀다는것 역시 어려운일일 것이다. 그들과 싸우기도 싫고 그들에게 협력하기도 싫다. 제3의 방법이 없을까. 그자는 부탁을 거절하면 신상에 해로울거라고 했다. 우선 이 치과부터 문을 닫아야할거라고 했다. 그자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정말 트라이앵글의 부탁이라면, 3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범죄결사. 아까 그놈은 정말 트라이앵글이 보내서 [illegible] 결정을 내리기전에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탁자위에 떨어져있는 메모쪽지를 집어들고 전화번호를 보았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가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여자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에서 침묵을 지키자

『아,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하고 묻는다.

『나 창이라는 치과의사인데 전화를 걸라고해서 걸었읍니다. 잘못된 전화가 아니라면 상대할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朴 男 그림

음주운전사고 징역형

경찰 특별단속, 싯밸트착용과 과속도

술취한 운전사에게는 더욱 엄한 벌을 내린다는 것이 온타리오정부의 방침이다.

온타리오주 죠지·테일러 검찰 총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술먹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이는 주정뱅이들에게 너무 가벼운 죄만 내렸다면서, 술먹고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술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똑같은 형량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자 마크·터기위츠에 4년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터키위츠씨는 음주허용량보다 3배나 많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충돌, 그 차의 운전사를 사망케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고도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한 테일러 총장은 연방법에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킨자에게는 무조건 징역형을 내리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개월간 경찰의 특별단속을 계몽키 위해 테일러총장은 경찰위원장 에스킨씨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치는 경찰은 시내 곳곳에서 임의로 차를 세워, 운전자의 음주상태등을 검사하며, 위반자에게는 일단 12시간 면허정지를 내린다.

경찰은 음주운전단속과 함께 과속차량과 싯벨트착용 유무로 단속한다.

온타리오주에서 1976년에 과속금지와 싯벨트착용이 의무화된후, 교통사고 희생자는 현격히 줄어 75년 1,800명 사망에서 81년에는 1,445명으로 목숨을 잃었다.

배재동창회 송년 파티

재토론토 배재동창회(회장 손명수)에서는 지난 11월12일 손명수태권도도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창근씨를 신임회장으로, 김정용씨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신임회장단은 오는 18일(토) 6시부터 Comroy호텔(Dufferin×Lawrence)에서 동창들을 위해 크리스마스및 송년파티를 주최한다. 회비는 무료이며 주류대만 각자 부담.

교민동정

◆곽춘구(한인천주교 서부구역회장)=서부구역 교우 친선의 밤을 11일(토) 하오7시 한맘회관(439 Dundas St. E. Tor.)에서 연다.

◆김기열(가게경영)=메시아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집사인 김씨는 남신우회 초대회장에 선출했다.

김씨는 "교회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피와 땀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피력.

킬과 세파드선상에서 큰 버라이어티가게를 경영하고 있다.

4개국 친선경기 제안

중공·한국·일본·북한

(서울6일=연합)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공은 한국, 중공, 일본, 북한등 4개국이 참가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시안게임의 중공팀 부단장인 우 젠양은 5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안했으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중공팀의 모든 선수들은 2개월 이상의 강훈련을 받았으며 이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약 280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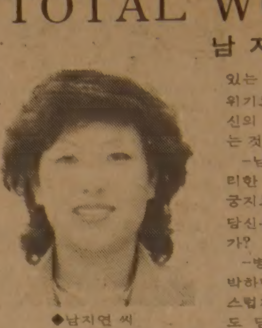
본보에 게재된 기사 또는 광고도안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제5계절

완전한 여성 TOTAL WOMAN

남지연(가정주부)



◆남지연 씨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라면 모름지기 네가지의 「씨」를 갖춘 여자라야만 완전한 여인이라고 일컬어 왔다.

네가지의 「씨」란, 첫째가 「솜씨」가 좋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맵씨」가 나야하며, 세째로는 「말씨」가 고와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마음씨」가 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여성으로서도 이 4가지의 「씨」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욱 손꼽혀야 할 것으로는 「남자를 사랑하는 지혜」를 첨가해야만이 완전한(나는 감히 이런 여성을 Total Woman이라고 칭하겠다)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례의 말같지만 남자란 도시 어린애와 같아서 쉬지 않고 칭찬을 해주어야만 활력을 느끼는 것같다. 그들은 은근히 밖에서 일어났던 신경쓸 일과, 긴장의 찌꺼기를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상대를 갈망한다.

아내의 무관심이나 이기심은 아마도 남자를 극도의 고독속으로 몰아넣는가 보다. 아내의 빈약한 젖가슴일지라도 활짝 열어 그들의 지친 머리를 포근한 휴식 속으로 몰아넣어 줄때 그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풍만한 가슴을 찾던 향수에 젖게 되나 보다. 그러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묻어온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남편을 로맨틱한 분위기로 유혹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인가?

—남편 수입 이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여, 남편을 궁지로 몰리게 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희열을 얻는가?

—병약한 남편이라고 구박하면서 보약 한첩 정성스럽게 달여 먹이지 않고도 당신의 만족을 채워주길 원하는가? 등등의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오뉴월의 땡볕에서도 서릿발치게 하는 것이 여자이면서도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여주는 삼월의 따스한 태양같은 Total Woman의 훈훈한 맛을 아는 남성은 영원한 우리의 반려자이며, 사랑할만한 남자가 있는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할머니 돕는 개

날마다 심부름 잘해

(상주-연합)개가 주인을 도와 물건을 사오는 등 심부름을 척척 해 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북 상주읍 성하동 장타간 할머니(73살)가 기르고 있는 암캐 탁구양(4살)은 장할머니가 신경통으로 오른쪽 다리를 못쓰게 된 후 게에 가서 콩나물·배추 등을 사온다고 한다.

4년전 장할머니가 충북 지방에서 사와 기른 이 탁구양은 얼굴모양이 진도개를 닮았고, 털빛이 하얀 흰둥이인데, 700여m 떨어진 장할머니 친척집에 가 물건을 가져오고, 사람을 데려오기도 한다는 것.

또 탁구양은 장할머니가 주는 음식외에는 절대 먹지않고,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심하게 짖다가도 친척이라고 말해주면 꼬리를 치며 반긴다고 한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를 도와 파를 사다 주고 있는 탁구양. 이 개는 남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할머니의 친척도 알아본다고 한다.

"잔인성과 위선등에 진저리 다신 프로권투 중계않겠다"

ABC-TV 스포츠 아나운서 하워드 코셀

▲하워드·코셀

〈뉴욕-AP〉 프로권투중계의 1인자로 알려져온 아나운서 하워드·코셀은 프로권투시합의잔인성과 위선등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코 프로권투시합중계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2일자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코셀은 오히려 아마추어권투시합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만약 ABC-TV방송회사가 원한다면 올림픽권투시합을 중계방송하고싶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일류 권투선수들이 아마추어계를 떠나 프로로 전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프로권투계의 위선과 엉터리시합에 진저리가 났다고 토로했다.

코셀은 지난 주 세계권투위원회(WBC)헤비급선수권방어전에서 챔피언 래리·홈스가 도전자 랜디·「텍스」·코브를 15회전동안 두들겨팰때 시합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계속 크게 외쳤으며 이시합을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미친』시합이라고 비난했었다.

홈스-코브대전은 알렉시스·아르겔로선수의 참패와 한국인권투선수김득구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열렸기 때문에 코셀은 이같이 좋지 않은 시간을 피해 시합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프로권투의 잔인성을 비난했다.

빅·세븐 선물센터
코트 대매출
LONDON FOG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여자용
특별할인봉사
●봄, 가을, 겨울용
$99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김장뉴스
김치의 맛은 좋은 고추가루와 맛있는 젓갈 선택에 달려있읍니다.
맛좋은 순 한국산 고추가루, 구수한 멸치젓 황새기젓, 향긋한 새우젓, 싱싱한 한국산 굴, 까기 쉬운 육쪽마늘등은 삼복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아직도 일손이 모자라 김장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삼복식품(☎ 743-8270)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입에 꼭 맞게 김치를 담아드립니다.
◎주문 배달 환영
2437 FINCH AVE. W. ☎ : 743-8270
값싸고 신용있는
삼복식품

연 말 연시용 $5이면 값싸고 특색있는 선물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도 비싸지않고 특색있는 선물을 5달러이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책과 카셋트—각각 카셋트가 부착된 어린이용도서. 책을 읽어주는 카셋트는 언제 페이지를 넘기라는 신호까지 해주어, 어린이들 스스로 즐기면서 배울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차분히 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바쁜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될듯. 카셋트대신 레코드를 사용할수도 있다. Peter Rabbit사, 책2권 카셋트 2 한세트에 4달러.

▲커피—커피미식가에게는 프레시한 그라운드·커피를 선물해도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음식을 즐기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선물하도록.

▲골프 스코어키퍼(Scorekeeper)—시계처럼 팔목에 찰 수 있는 이 스코어키퍼는 골퍼들의 토탈·스트로크를 알수있게 해준다. Ajay Sports사, 4달러25센트.

▲친구의 사진—친구가 혼자 또는 다른친구와 있는 사진을 찍어 프레임속에 넣은뒤 선물한다. 가격도 비싸지 않을뿐 아니라 훌륭한 추억거리선물이 된다.

그냥 프레임만 선물하는 것도 좋은 선물이다. 5달러에서 10달러.

▲지구본—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선물. 6인치지구본이 5달러.

▲Phone rest—남과 통화할 때에도 어깨의 폰·레스트에 전화를 올려놓고 양손으로 다른 일을 계속할수 있다. Phone Cushion사, 3달러 50센트.

▲카·워시(Car Wash)쿠폰—대개 3달러50센트.

한편 조금 비싸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한 선물로는 다음의 ᆞᆞ가 있다.

▲피도ᆞ터(Pedometer)—허리에 차고 다니면 걸음의 횟수로 그동안 걸은 마일리지를 알려준다. 산책, 조기잉, 하이킹을 할때 편리한 상품. 약15달러. 스포츠용품상점에서 구입.

▲Shock Watch—테니스를 할때 팔을 잘못 휘두름으로써 일어나는 테니스·엘보우(근육통)을 흡수, 막아준다. 약30달러. 스포츠용품상점에서 구입.

참된 나와 외로움

독자詩 — 서 윤 정(토론토 거주)

질어지는 외로움,
그 귀결은 무표정임을 느낀다.
지독한 고독은 마귀의 장난일지 몰라.
그 수단에 넘어가지 말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도무지 자신이 없다.
삶이 허탈해진다.

사람을 알고부터 외로움이 싫어진다.
친구와의 우정을 알고부터 침묵을 무시한다.
따뜻한 대화를 그리워한다. 매일마다…
따뜻한 모습이 그립다.

나의 생이 평범하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평범함을 기다린다.
무엇이 옳단 말인가!
알 수 없다.
해서 무엇을 알려고 노력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기에 주님을 찾나 보다.

인간이 아닌 신에게 의지해
감사하나 보다.
정말로 참된 나를 찾기 위해 교회에 발길을
돌리나 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날 내던지는가 보다.

제가 돌아왔어요, 다시한번봐주세요

◆재기하는 멜린다·노드. 전「듀크스 오브 해저드」스타 존·슈나이더와 사귀면서 브라운관을 떠났던 노드가 그와의 관계를 청산한뒤 다시 돌아왔다. 이미「필론가족」에 출연한 그녀는「해피 데이스」에도 출연할 예정.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우리의 삶이 물질로, 그래서 숫자로 평가되고있는 작금이다. 통계·통계·통계, 그저 무엇이고 양적인 표현이 앞을 다투어 경쟁심을 조장(선의의 경쟁도 있다고는 하지만)시키고 사람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때로는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남의 마음을 쉽게 알수는 없다.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처녀성 여부로 큰 많은 고통을 받고있다. 처녀이어야 할 형편인데 처녀가 아닌 것이다. 어느 젊은 여성이 전화에다 대고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운운하며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운듯 말끄리를 흐리면서 그러나 출혈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무슨 수술인가를 해야 합니까』하며 도무지 요령없는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성행위인지 아닌지의 분간(한번도 경험이 없었으므로)은 잘 안되나 남성과 묘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리고 출혈이 있었다. 이 출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만일 정말 결혼을 할 때 출혈이 또 있을 것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재생수술을 해서 첫날밤에 다시 출혈이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정리를 했다는 내용도 얼른 알아듣기가 어려운 얘기다.

요는 남성과 성행위는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그래서 출혈이 있었다는 것은 처녀막이 손상을 입었다는 뜻일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하면 요령좋게 다시 처녀 행세를 할수있겠느냐 하는 뜻인것이다. 이 여성은 성행위가 아닌것같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남녀의 성기가 어떤 단계까지라도 접촉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단계였든지간에 성행위는 성행위지 아닐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여성은 부득부득 다음에 관계할때 출혈이 있도록 만들고 싶은것이다. 어떻게해서 이여성은 처녀임을 출혈이란 현상으로만 표현하고 싶은것인지, 이미 처녀가 아닐텐데 왜 처녀로 보여야 하겠다는건지? 처녀이고 아니고는 고사하고 여하튼 첫날밤에 출혈만 있으며 되겠다는 어쩌면 애절하기까지한 이 여성의 바람은 어디에 그 연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인지.

우선은 교육을 시켜놓지 않은채 그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어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여성은 성행위가 어딘것인지도 모르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의 삶이 걸치레에 있다는 사실이다.

처녀성보다 마음의 純潔이 중요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인식품 SUN'S FRUIT 마켓

● 친절 봉사
● 저렴한 가격
● 철저한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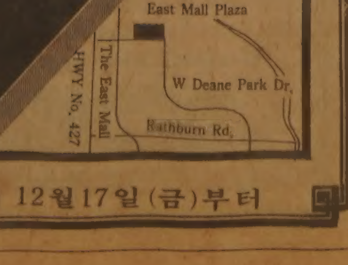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금번 제가 오는 17일(금) 여러 한국식품을 구비 하고 개업합니다.
1차 왕림하셔서 구경해 보시고 앞으로 많은 애용을 바라겠읍니다.

손 덕 수 올림

※도매업(감자, 계란, 각종 채소, 화분등)
※다운타운및 WEST 지역에 한해 배달가능.

SUN'S FRUIT MARKET
15 WEST DEAN PK DR (EAST MALL PLAZA)
Tel;622-2643

대개업



개업 12월17일(금)부터

景氣 꾸준한 回復勢

月例經濟動向보고 10월 豫告指標 1·2로、安定圈다져

物價는 3·6%올라 11월末

全대통령 "安定基調속 成長추구를"

◇全斗煥대통령이 月例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有功者에게 새마을훈장을 수여한뒤 악수를 나누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3일 物價안정요인은 對外요인과 對內요인이 있으나 여기에 心理的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지적, 『따라서 물가를 안정시킬수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때 물가는 안정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全斗煥대통령은 이날 상오 기획원에서 月例경제동향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안정없는 성장은 실속이 없는만큼 앞으로 우리는 확고한 안정기반을 토대로 성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불확실성이 날로 더해가는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가 生存權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모두가 合心해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이에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자기만 잘살고 편하면 된다는 의식을 뿌리뽑아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全斗煥대통령은 이날 경제기획원에서 金埈成부총리로부터 지난10월 11월중 경제동향을 보고받았다.

金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물가안정및 국제수지개선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內需부문을 중심으로 착실하고 꾸준한경기회복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金부총리는 2~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예고해주는景氣豫告指標(WI)가 지난 9월1·1을기록, 침체국면에서 안정권으로 진입한데이어 10월에도 다시 1·2로상승, 지난79년6월 수준을 회복하면서 안정국면에 정착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경기선행종합지수(CI)역시 10월중 1·7%가상승, 연속8개월째 계속되는 회복세를보였다고 밝혔다. 물가는 도매가 11월말현재 연말대비 2·0%, 소비자가 3·6%상승에 각각머물러 현저한 안정세를 나타냈으며 국제수지역시 10월말현재 연간 경상수지적자가 15억5천4백만달러에 지나지않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은 11월말현재 1백99억9천3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증가에 그쳤고 수출신용장내도액(L/C)은 전년동기대비 9·0%감소, 계속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내수부문으로 특히 건축활동이 활발해 허가면적이 전년동기비 36·9%나 늘었으며 기계수주(전년동기비 11·5%증가), 설비기계수입허가(26%증가), 중소기업시설투자(35·3%증가)등투자관련지표도 호전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용사정도좋아져 지난9월 3·5%였던 실업률이 10월에는 3·2%로 낮아졌으며 실업자수는 55만3천명에서 51만5천명으로줄었다.

한편 금융은 이기간 총통화증가율이 10월의 32·1%에서 11월에는 30·7%로 낮아졌으며 통화증가율은 68·0%에서 52·8%로, 화폐발행액증가율은 24·4%에서 23·3%로 각각 줄어들었다.

有功者3명에 勳章 全斗煥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자리에서 金聖培(33·경북善山郡善山邑院三洞 새마을지도자) 朴鴻光(43·전남麗川郡南面단위 農協조합장) 崔相福씨(55·仁川新韓工機회사 사장)등 3명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 주었다.

選手團환영 성대히

全斗煥대통령은 3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종합3위를 확보한데대해 『이는 선수들이 모두 잘했기때문이며, 특히 마라톤에서 우승한것은 값진승리』라고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기획원에서 월례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하기에앞서 이같이 말하고 『선수들이 귀국하면 환영대회를 성대하게 해주도록하라』고 李源京체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韓民統 사실상 瓦解

在日 反韓단체 鄭在俊부의장 脫退

한땐 金大中救出委員長으로도 활약

【東京=宋孝彬특파원】 在日 反韓단체인 韓民統의 부의장인 鄭在俊씨(65)는 3일하오 東京신주쿠(新宿)게이오(京王)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韓民統이 벌여온 反韓활동이 결과적으로 조국韓國을 해쳐온 잘못된 노선이었음을 깨닫고 탈퇴했다』고 선명했다.

韓民統의 핵심인물인 鄭씨의 이탈로 反韓단체인 韓民統은 유명무실한단체로 축소돼 사실상 와해될것으로 보인다.

鄭씨는 韓民統부의장과 金大中救出委員會위원장및 反韓단체에 두고있는 일체의임원직을 사퇴하고 지난11월19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방문했다고 밝혔다.

鄭씨는 서울을 방문한인상에 대해 『11년만에 밟은 조국은 눈부실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한강다리가 2개였던것이 12개로 늘어나는등 몰라볼정도로 변해있었다』고 말하며 『지금 생각하면 韓民統을 이탈해서 조국을 다녀온것이 잘한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韓民統이 73년 발족당시부터 점차 지지기반을잃기 시작, 현재 상주조직인원이 40명으로 줄어든 것은 韓民統의 정치노선이 잘못된것임을 입증한것이며 韓民統이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화를촉구하면서 비민주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도하지않은것은 정치노선의 오류이다』고 말했다.

鄭씨는 이제 일체의 정치단체에서 손을떼고 民團員으로복귀, 사업에 전력할것이며 현재 韓民統이사용하고있는 홈고(本鄕)소재 舊民團 본부건물은 당초 民團소유건물이므로 民團에 반환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鄭씨는 68년부터 71년까지 民團東京地方本部단장이었으나 民團조직의 내분과 7·4南北共同성명을 에워싸고 民團에서 이탈, 73년8월 金載華와함께 反韓단체인 韓民統을 결성했었다.

◇鄭在俊씨

◇7萬환호속 골인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무명 金梁坤선수가 2시간22분21초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하고있다. 【신문공동취재단=聯】

마라톤 金梁坤 金메달

無名신예、24년만의 快擧

2시간22분21초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무명의 신예 金梁坤(22·한국체대 3년)이 제9회 아시안게임 마라톤서 2시간22분21초의 기록으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마라톤서 우승한것은 지난58년 제3회東京대회때 李昌薰이래 24년만의 쾌거다.

日本의 아베는 2시간24분09초로 2위를 차지했으며 印度의 쿠카가 2시간25분07초로 3위를 마크했다. 한국의 金鍾允과 북한의 소창식은 각각 6·7위에 머물렀다.

金은 금년 서울국제마라톤서 2시간19분41초로 11위를 기록했으며 이날 기록은 한국최고기록(2시간16분15초)에 6분이 뒤졌다.

한국은 金梁坤과 여자배드민턴 복식조의 우승으로 金메달20개를 확보했다.

◇마라톤기록 ①김양곤(한국) 2시간22분21초②아베(일본)2시간24분09초③쿠카(인도)2시간25분07초

국민, 地區黨개편

국민당은 내년1월에 열릴 全黨大會와 관련, 이달 말까지 지구당定期위원회(改編대회)를 개최하라고 3일각 지구당에 지시했다.

政治議案 6일再論

野선 秋穀 추가收買 촉구

3黨 總務회담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2일에이어 3일에도 총무회담을열고 政治議案의 타결을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얻지못하고 오는 6일상오 다시만나 再論키로 했다.

그러나 3黨총무들은 정부가 국회에낸 資源관리법안의 所管상임위 문제를 결정키위해 일단 運營委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民正·民韓·국민당은 그동안 야당측이 제안한 35개案件(民韓26件·국민9件)을 이날부터시작된 정기국회마지막常委활동중 우선적으로 다룰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에대해 民正黨측은 이법안들이 정치적으로 관계되는것인만큼 좀더 신중히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한편 야당측은 최근 쌀값의 급격한 下落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정부의올秋穀수매량 7백만섬중 내년초에 수매키로한 1백만섬을 연내에 앞당겨 수매해주는한편 1백만섬을 추가로 수매하라고 촉구했다.

金總理 南美향발

金相浹국무총리는 6일부터 21일까지 콜롬비아·페루·칠레등 中南美 국가를 공식방문키위해 부인 金仁淑여사와함께 3일 하오7시 金浦공항에서 KAL便으로 출국했다.

◇金국무총리

金총리는 南美순방에 앞서 3일하오8시(현지시간)뉴욕에도착, 4일하오엔 뉴욕지역 교민대표와 기관장들을위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金총리의 순방에는 徐相喆동자부장관 盧載源외무·琴震鎬상공차관·趙英吉총리비서실장등 공식수행원9명과 具斗會子重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金鍾大大田피혁사장、金星반도체사장、劉石源(株)鮮京사장、李與熙大宇그룹부회장、全相昊三星정밀사장、鄭世永현대자동차사장등 경제인 7명이 수행했다.

金融관계 8개法案 財務小委 본격審査

국회財務委의 금융關係法심사11人小委(위원장 鄭順德의원)는 3일하오 첫회의를열고 은행법개정안과 實名化법안등 8개 금융관계법안에 대한 본격적인심사에 착수했다.

小委는 이날 與野간 異見이적은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국가債權관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 ◀國公立대학교원도 금융통화위원이 될 수 있도록하고◀韓銀총재는 每會計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當該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토록 農·水協과 각이 畜協중앙회도 신용업무담당◀每月초10일이내에 前月의 貸借對照表를 공고토록하던것을 매월20일내로 공고토록하는등 韓銀法 개정안을 정부案대로 처리했다.

社告

'83新春文芸 作品모집

오는 11일 마감

文壇의 새별 기다립니다

한국일보社는 내일의 한국 文壇을 이끌어갈 참신한 文人을 찾는 1983년도(29회) 신춘문예를 공모하고있습니다. 1955년 처음 신춘문예를 공모해온 한국일보社는 그동안 많은 유능한 작가들(별표참조·지면관계상 詩·소설부문만 게재)을 배출했습니다. 최근의 우리 문단은 격변하는 시대상에 따라 대중에게 새로운 정신적 영양을 공급할 유능한 새 작가의 등장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일보社의 작품응모 열기는 예년에없이 열기를 띠고있습니다. 한국일보社는 응모마감을 12월4일에서 12월11일로 1주일 연장, 더욱 많은 작품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種目및 원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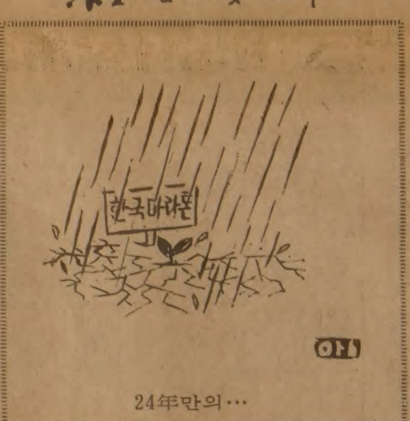
▲小說(2백자 80~1백장)……1백만원
▲詩(3편 이상)……50만원
▲時調(3편 이상)……40만원
▲隨筆(2백자 15장 2편)……40만원
▲童話(2백자 30장안팎)……40만원
▲戲曲(單幕·80장 안팎)……60만원

◇응모요령

▲마감=12월11일(土)하오5시까지
▲보낼곳=서울鍾路區中學洞14번지한국일보社文化部(우편번호110)
▲주의사항=①겉봉투에 반드시 『신춘문예 응모작』과 응모부분을 밝힐것 ②원고의 맨 첫장과 맨끝장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③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우송할 경우 마감일자이전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것은 접수가 가능함.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24年만의…

地平線

말로만 듣던 인공심장시대가 열렸다. 미국에서 세계최초로 영구 인공심장 이식수술에 성공한 것이다. 유타대학의 윌리엄·데브리즈 박사가 5시간30분에 걸친 수술끝에 심장병을 앓아온 한 회갑노인의 심장을 떼어내고 폴리우레탄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인공심장을 끼워넣었다 한다.▼지금껏 심장바꿔넣기, 심장의 부분적 인공이식은 있었으나 영구적 인공심장 이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심장이 주먹크기만한 이인공심장은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제디크 7이라 불린다. 작기 거부반응은 없으나 단점은 대형공기압축장치를 외부에 따로 마련해야 되기때문에 불편하고 수술비용이 10만달러나 드는 점이다. 인공심장은 휴대용 TV수상기정도의 배터리에 접속된 공기압축기 힘을빌어 작동하게된다.▼사람의 심장은 수태후 18일만에 완두콩만한 胚에서 고동이 시작되면 죽을때까지 한번도 쉬지않고 활동한다. 1분간에 성인의경우 고동수는 76회가 평균이다. 사람의 수명을 가령100년으로 칠때 심장은 약50억회나 일생동안 수축하는셈이다. 하나 운동을 많이하면 그두배반으로 는다. 폭이하면 심장이 튼튼해야 격렬한 운동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번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24년만에 우승을 되찾게한 無名의 新銳·金梁坤선수의 심장도 伯林올림픽때의 孫基禎선수와 거의맞먹을만큼 튼튼할게 틀림없겠다.▼심장에 들락날락하는 피는 23초에 한번순환하고 하루에 3천7백번이순환한다. 1분간에 6ℓ, 하루 6~10톤의 피를 순환시키는데 일생을 따져보면 15~25만톤의 量을 돌게한다. 어떤 생리학자계산에 의하면 우리의 최고봉·몽블랑의 頂上인 해발4천8백10m까지 기차를 처들어 올리는 일을 해낸다고한다. 이렇게 酷使당하는 심장인만큼 갖가지 병도 생기게 마련이다. 심장병, 고혈압으로 고생하는사람이 많아지고 미국사람들의 死因가운데 제일흔한것도 심장병으로 알려져있다.▼15년전에 심장이식수술을 처음개척한 버나드박사는 이번 수술결과에 대해 인간의 심장이식이야말로 인공심장이식보다는 가딴 장종은 방법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뱃속에서부터 달고 나온 심장을 떼어내고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인공심장을 이식한 것이 과연 완전한기능을 오래도록 가질수 있을는지, 더 두고볼 일인것 같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개업 11월 15일
적은 돈에서 많은 돈까지
짧은기간에도 높은이자!
대형주차장 완비
새시대 새투자
신한투자금융(주)
충무로 1가 24의 1(명동입구)754-2481,5181

창립 8 주년기념 예배안내

본 교회 창립8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
＊예배후 간단한 만찬회 있겠음.
교통안내 : 키플링 지하철종점에서 먼다스 동쪽 한블럭 북쪽에 건물이 보임. 당일 본 교회안내 차량이 종점 택시승차장에서 대기합니다.
문의연락 : 621-6340

토론토 대한교회
KOREAN CHURCH OF TORONTO
교우 일동

교육전도사 청빙

본교회 2세들의 종교언어및 정서교육담당

ㅁ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사진 1매
ㅁ자 격 : 신학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한국 또는 북미주)
ㅁ기 간 : 82년12월25일까지
ㅁ연락처 : ☎ 221-1382
☎ 496-2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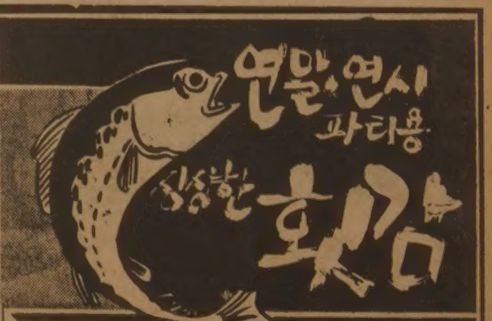
THE KOREAN BETHEL CHURCH
395 OLD YONGE ST.
WILLOWDALE ONT.
M2P 1R6
벧엘교회
당회장 목사 최상봉

천주교(한맘)노인회 크리스마스 파티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리스마스파티를 마련하였아오니 많은 회원이 참석하시어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9일(주일) 오후3시
장 소 : 천주교(한맘)회관 439 Dundas St. E.
행사종목 : 복권추첨, 일반회원 여흥
연 락 처 : 김성근 ☎ 368-1165

천주교(한맘) 노인회 임원 일동



연말·연시 파티용 싱싱한 회감

주문에 신속배달
●횟감 : ＊민어 ＊튜나
●신선한 생선 : ＊아지 ＊가재미 ＊동태 ＊새우 ＊물오징어
항상 준비되어 있읍니다.
(파티용 TRAY는 3일전 예약바람)
3413 FIELD GATE DR. MISSI.
(블로아와 딕시에서 2블락 동쪽에 위치)
624-3092 임 호 빈
FOREST GLEN SEAFOOD

사우디·이란 또 一戰태세

좁아지는 석유시장 配分문제 놓고

날로 좁아지고있는 세계석유시장의 배분문제를놓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또다시 一戰을 벌일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 두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가운데 현재로서는 가장큰 규모의 産油國이며 이달19일 빈에서 열리는 OPEC각료회의에서도 만만치않은 대결양상을 펼칠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배럴당 34달러인 현OPEC公示價를 지키기위해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데 반해 이란은 수출량을 늘리기위해 파격적인 가격인하정책을 단행, OPEC전체 수출량인 1일 2천만배럴가운데 약10%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는 사우디의 6백만배럴에는 훨씬 못미치는 규모이지만 이란이 OPEC로부터 배정받은 쿼터1백20만배럴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다.

사우디와 그의 페르시아灣협력협의회(GCC) 동맹국들은 이란이 그들의 수출쿼터를 지키도록 촉구하면서 이란의 과잉생산이 다른석유수출국들로 하여금 어쩔수없이 가격을 인하하게 만드는 사태를 몰고올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이에대해 이란의 모하마드·가라지석유상은 이른바 페르시아만 3대 산유국인 사우디 이란 이라크의 수출총량이 OPEC의 배정분인 1천만배럴이내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1백20만배럴로 책정된 쿼터를 좀 무시해도 되지않겠느냐고 맞서고있다.

서방분석가들은 이란이 산유량을 감축하기는커녕 현재의 생산능력으로 추정되고있는 1일 4백만배럴로 생산수준을 높일것으로보고있다.

故人이된 팔레비王 시절, 이란은 한때 1일 6백만배럴까지생산했으나 그후 팔레비를 축출한 회교혁명지도자들은 산유량이 많을수록 서방에만 이익이될뿐 이란의자원이 고갈된다는 이유로 산유량을줄였으며 현재는실각한 아볼·하산·바니·사드르 前대통령같은이는 이란경제가 석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개선하기위해 석유수출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정치적인 修辭로 그들의 석유정책을 파악하기어렵게만들뿐, 사실은 가격을 낮추더라도 산유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는것으로 믿고있다.

이란이 OPEC가격보다 무려 8달러나 싼 배럴당 26달러에 自國產 원유를 수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이란의 원유선적장인 하르그섬일대의 전쟁지역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외국유조선들을위해 보다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등 각종수출증대작전을 펴고있는 가운데 이달19일의 빈 각료회의는 또 한바탕 시끄러운 공방전을 벌이게 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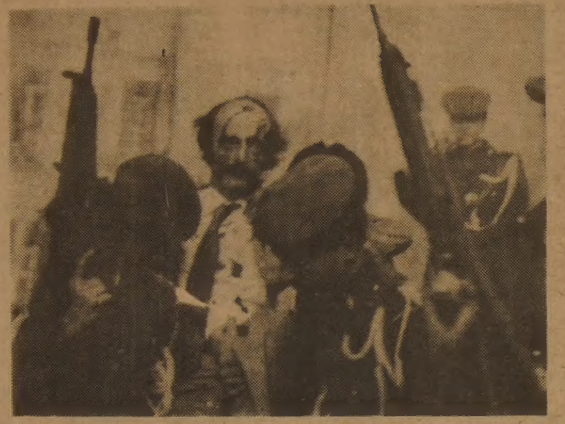
이란의 이같은 직접 간접적 유가인하책은 현재의 공급과잉상태에서 생산을 줄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사우디의 정책에 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며 사우디를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이란이 현재의 노선을 계속 고집할 경우 그들도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어 이란과의 유가인하경쟁을 不辭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분석가들은 이란과 그밖의 페르시아만 국가들간의 異見을 고찰하는데 있어 이념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하고있으며 사우디등은 실제로도 이란을 OPEC정책뿐 아니라 이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있다. 【런던=聯】

베이루트東部 산악마을서 기독교·回教派 戰鬪치열

이스라엘軍 철수직후 開戰

野砲·기관총동원 19명死傷



◇경찰의 부축을받고있는 줌블라트 레바논 좌익 드루즈 회교지도자 왈리드·줌블라트가 1일 승용차폭발사고로 부상한후 경찰의 부축을받고있는 모습. 【베이루트2日UPI=聯合】

【베이루트AP聯合=聯合】 레바논 左翼회교 드루즈派지도자 왈리드·줌블라트(33)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지 하룻만인 2일 베이루트동남쪽 산악지대에서 드루즈派 회교도들과 기독교팔랑헤黨 민병대간에 치열한 전투가벌어져 이날하오까지 계속됐다고 우익 레바논의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이방송은 줌블라트가 이끄는 사회진보당소속 드루즈派 민병대와 기독교 팔랑헤민병대가 이날아침11시부터 베이루트동남쪽10㎞떨어진 수크·알·가르브와 아이타트등 산간마을에서 야포와 기관총을 동원,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전했다.

보안소식통들은 이날 전투가 하오에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했으나 사상자수는 밝히지않았다.

이 소식통들은 이날 전투개시직전 산악지역을 장악해온 이스라엘軍이 이지역으로부터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루트 동쪽 야르제주둔 이스라엘軍 대변인은 이스라엘軍의 이동에관해 아는바없다고이를부인했다.

레바논 보안소식통들은 4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했으며 줌블라트 자신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이후 베이루트와 산악지역에서 좌우파간의 流血충돌이 우려돼왔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제마엘대통령이 모리스·드레이퍼 美中東특사및 프랑스 이탈리아대사와 가진 회담에서 산악지역을 점령중인 이스라엘軍의 철수를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北韓, 對西方채무이자 또滯拂

홍콩리뷰誌보도 8억4천만달러나

북한은 8억4천만달러의 對西方채무이자를 또다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3일자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 보도에따르면 북한이 지난5월부터 이자지불불능상태에 빠져 북한무역은행장 方基煥이 지난7월런던을방문, 채권국들에게 이자연체에대한 對北韓제재를하지말아달라고 간청했다는것.

북한은 궁여지책으로 채권국들에게 원리금상환대신 북한산 금, 석탄, 구리, 중석등 현물로 상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일본을 제외한 西方국들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이잡지는 전했다.

북한은 이같은 막대한부채부담때문에 유럽의 베른, 스톡홀름등지에서 장기임대계약을 못하고 단기임대하는상황이라고 리뷰誌는보도했다.

그간 북한의 최대교역국이던 중공과 소련도 북한의 채무누증으로 차관공여를 꺼리자 북한은 對西方무역에 치중해 작년에 2억1천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고 이 주간지는 밝혔다.

북한의 對西方 채무액은 호주, 뉴질랜드 은행 차관단의 3억3천2백만달러를 비롯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등지에 8억4천만달러이다.

北韓·리비아 군사同盟조약

【홍콩=聯】 북한과 리비아는 제3국의 공격을 받을경우 상호 방위협력을 약속하는 전례없는 동맹조약을 체결했다고 홍콩의 주간英字誌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가 2일 보도했다.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는 국제문제분석가들이 북한-리비아동맹조약을 대체로 하나의 상징적 문서로 보고있으나 이 조약은 양측간의 군사협력증대와 『리비아 정부의 對북한장비제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잡지는 이날 발행된 최근호에서 북한의 金日成과 리비아국가원수 무아마르·가다피가 지난11월2일 가다피의 5일간의 북한방문시 平壤에서 양측간의 동맹·우호·협력조약을 조인했다고 말했다.

12개國 太平洋圈정상 회담 全대통령의 추진노력 極讚

홍콩 英字紙보도

【홍콩=聯】 全斗煥 대통령은 태평양연안 12개국은 물론 중공에까지 문호를 개방하는등 태평양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다고 홍콩의 英字紙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해설을 통해 全대통령은 최근 수개월동안 정상급외국지도자들을 만날때마다 태평양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전하면서 全대통령의 끈기는 대단하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全대통령이 특히 피에르·트뤼도 캐나다 수상및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과 만나 협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역내 12개국중 현재 6개국이 정상회담개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방위력정비 美日신뢰강화

나까소네 施政연설

【東京=宋孝彬특파원】 나까소네(中曾根康弘) 수상은 3일하오2시衆議院본회의에서 취임 첫시정연설을통해 『美·日안보체제를 유지, 自衛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질 높은 방위력의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외교정책으로 『日本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좌표를 착실히세우고 美·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美·日신뢰관계를 증진시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에 의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아시아각국과의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이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상호협력해 나갈것』이라고 표명했으나 韓·日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韓日議員聯총회 20일 東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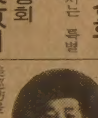
韓日의원연맹 총회가 오는 20, 21일 이틀간 東京에서 열린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6일 간부회의를 소집, 대표단구성문제를 포함한 총회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주최하는 일본측은 20일 하오에 運營委를, 21일에 총회및 分科委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는 회의 日程을 3일 한국측에 통보해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河長春기자 出國 총리수행 취재차



本社政治部 河長春기자는 金相浹국무총리의 南美巡訪을 隨行취재하기 위해 3일하오 出國했다.

人事異動

科技團 총연합회 ▲사무총장 李慶煥

自動車保險 ▲大邱支店長 姜洙烈 ▲馬山〃 諸大玉 ▲東大邱〃 郭漢彬 ▲外國部 部長待遇 崔炯晟 (1日字)(2日字)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흥신의 「人間市場」 ●한국 事閥·人脈을 편다

記者의 눈

마라톤 快擧

마라톤만큼 우승자를 점치기 힘든 종목도 많지않다. 국내 육상계에서 조차 낯익지않은 金栄坤이 아시안게임 마라톤을 제패한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金은 사이클의 마라톤인 185㎞ 도로경기에서 우승한 朴世龍과함께 무명이면서 가장 각광을받은선수가 됐다.

金은 1착으로 들어선뒤 『주위에서는 큰기대를 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름대로 작전을 세워 우승할수있다고 자신했다』고 밝혔다. 사이클의 朴이나 마라톤 金의 쾌거를 놓고볼때 결국 명성은 꾸준한 노력앞에 무릎을꿇고말았다.

金의 우승기록은 2시간22분21초로 한국 최고기록에6분, 세계정상과는 13분이 뒤진다. 金의 기록자체는 뛰어난 것이아니지만 기록만 갖고 金의쾌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수영에서 3관왕을 차지하여 화제를뿌렸던 崔允喜의기록도 세계기록과는 상당한격차가있다. 기록경기에서는 종전기록에 미치지못하면서도 1위를차지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사력을다해 인간한계에도전하는마라톤레이스에서는 1位는1位로서빛나는 값어치가있다. 세상살이도 이와마찬가지다. 최근 다른나라 마라토너보다 먼저 테이프를 끊은적이없는 한국마라톤이 1등을했다는 사실자체에 더큰 비중을두어야하지않을까. 또한 金의 아시안게임제패는 국내 마라토너들에게 우리도 앞서나갈수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사그라졌던마라톤왕국의 명성을 되찾는 촉매제가됐다.

섭씨29도, 습도80%의나쁜 레이스컨디션과 한국선수들보다 좋은 기록을 갖고있던 북한의 소창식등 강호들을 실력으로 제쳤다는것은 어쨌든 기분좋은일이다.

金에게 바라고 싶은것은 이번 우승에 만족하지말고 계속 기록경신을 해달라는 것이다. 【金仁奎기자】

社說

南美로 가는 總理外交 —전통友好와 實質協力 증진의계기

南美友邦 3개국을 공식방문하기위하여 金相浹국무총리가 어제하오 취임후 처음으로 출국하였다. 우선 뉴욕을비공식방문, 그곳 교민들을 위로격려한데이어 오는6일부터 11일간 콜롬비아의 베탄쿠르 大統領, 페루의 벨라운데大統領, 칠레의 피노체트 大統領을 비롯하여 巡訪國 정부및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金총리의 이번 南美3개국巡訪 목적은 기존하는 친선적 유대의 가일층 공고화와 前向的 協力증진方案의 협의라고 관측된다. 부인 金仁淑 여사와 더불어 徐相喆동자부장관, 盧載源 외무차관, 鄭壽鎔상공차관등 공식수행원 9명과 尹子重무역진흥공사장이하 경제인 7명을 대동한다. 金총리 一行의 人的構成에 보듯이 政治·外交분야의 공동관심사 뿐만아니라 다방면적인 經濟協力문제가 폭넓게 협의될것으로 예견된다.

韓國은 제5공화국출범이후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5개국및 阿洲4개국巡訪에 부각되었듯이 제3세계友邦들에 대한 政經關係深化에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해 왔다. 全대통령의 그같은 外交노력을 뒷받침하는 補完의 文脈에서 金총리의 南美巡訪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큰것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광대한 南美지역에는 韓國의 전통적 友邦들이 절대다수임을 확인케한다. 지역내 32개독립국가중 韓國은 28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7개국은 우리와의 單獨修交國이어서 北韓의 12개국修交를 압도하고있다. 그리고 이번巡訪대상국들은 각별한 친선적 유대의 견지로 특기되는 바이다.

오늘의 세계정치에서 南美대륙이 차지하는 커다란 比重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풍부한 資源지대라고 알려진 이지역 국가들은 무한한 開發가능성을 헤아리게한다. 自由愛好開放社會의 價値觀體系도 넓리 보급되어온 터이다. 하나 최근년에 제3세계 공통의 自主意識과 독자성 모색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묘한 새 氣流가 관측되는바 없지않다.

非同盟路線의 추구로 말하면 時代的進運의 한 반영으로보아 韓國역시 적극적인 이해를 서슴지 않는 바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과도기적 격동속에 左傾세력의 침투도 관찰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포클랜드戰爭이후 反英·反美분위기도 감촉되는바 있다. 레이건 美대통령의 南美4개국巡訪도 그러한분위기를 감안한 외교적 만회노력으로 풀이된다.

韓國의 경우 南美友邦들과는 시종일관 각별한 친근감을 간직해온 충분한 이유가 확인된다. 우리는 다같은 新生開途國이며 自主의 氣象이 공통적인데다가 太平洋時代의 개막을 내다보는 沿岸國들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金총리의 첫巡訪國인 콜롬비아는 6·25參戰國으로서 韓國국민이 戰友的유대의식까지 느끼는 각별한 友邦이다. 페루는 전통적 친선에더하여 상호實益을 바탕으로한 資源開發및 通商증진에 걸쳐 協力의 여지가크다. 칠레는 韓國과의단독수교국이며 굳건한 自由守護의 理念的基調를 같이 한다. 그리하여 全대통령이 제시한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대한 3국의 지지는 金총리巡訪을 계기로 더욱 擴延·深化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世界史의 必然처럼 展望되는 太平洋連帶의 構想을 중심으로 이번巡訪國들이 韓國과 마찬가지로 그沿岸國임을 상기하면서 참신한 經綸의 상호피력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中進·新進을 포함한 太平洋沿岸 開途國들간의 同伴者관계를 實質協力진전으로 深化시키는 共通의 廣場 설정을 내다볼수 있겠다.

金총리의 南美友邦國巡訪을 격려하면서 互惠的 協力강화가 多邊的으로 다져지리란는 기대를 여기 강조해마지 않는다. 太平洋沿岸 開途國들간의 相互依存的 補完관계 발전은 우리時代의 피치못할 前向的要請임을 생각케 한다.

다음은 우리가 主人 —아시안게임, 3위의 榮光 鼓動크다

잇단 승전보가 힘차게 고동친 하루 하루였다. 아시아의 한국, 뉴델리의 태극기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인도아시안게임은 86년서울대회를 기약하며 오늘 막을 내린다. 종합3위를 따낸 韓國의 모습들이 6일 개선한다.

「예상」 보단 「意外」의 전과가 돋보이고 많았다. 숨어있던 진주가 여봐란듯이 영롱한 빛을 발했다. 소녀수영3관왕, 테니스 3관왕등이 탄생한것은 마치 기적처럼 놀랍고 기쁜것이었고 종반에 있은 마라톤 아시아제패 역시 이에 뒤질수 없는 환희의 낭보였다. 모두 귀가 번쩍 열리는 것이었다.

어느 누가 기대를 걸었고 상상이라도 해본 쾌거였던가…. 흔한 말로 참가의 의의나 새겨보는것이 고작이 아닐까 했지만 끝내 우승까지 하고 만 것이다. 「하면된다」는 저력을 다시 확인케 했다.

2시간22분대의 落後기록은 좀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무명의 마라토너 金栄坤이 24년만에 아시아정상을 탈환한것은 값지고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 마라톤은 中興의 기록제조가 이제야 터졌다 하겠다. 우승보다 중요한 뜻은 가능성의 발견과 자신감의 회복이다. 세계정상의 금자탑은 하루아침에 세워질수 없다. 우리 마라톤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세워야겠다. 2년뒤로 다가오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86년, 88년 서울에서 펼쳐질 영광의 골인이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기록도전의 벽은 아직 까마득히 높고 세계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우리선수들의 저변도 아주 좁으며 고난의 레이스는 끝이 없다. 하더라도 어제의 실의와 좌절의 늪을 헤어날 기회는 잡힌 것이다. 따라붙으면 세계의 선두로도 나설수 있다는 의욕이 타오르게되고 인내와 의지의 싸움에서 우리가 뒤질까닭이 없다는 확신이 서며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는 진실을 對한 것이다.

마라톤만 아니라 모든 육상경기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때다. 2백m달리기와 넓이뛰기서의 값진 金메달 성과는 내일의 도약을 암시한다. 「인간은 시속 4㎞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한데 우리는 그간 육상이 스포츠의 기본이라는 상식을 밀어두고 인기종목에만 치우쳤다. 일본과 중공이 독점하다시피 한 「金脈육상의 교훈」을 더는 잊지말아야 하겠다. 수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승리의 행진은 자랑스러운 것이나 몇몇 기대종목의 「빗나간 예상」은 큰 반성거리로 남는다. 남북대결에선 압도적 우세를 과시한 球技가 金메달 분량에서 밀려 처져 버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다른 종목의 부진과 저조도 적지않았다.

그 실패의 원인은 지도자와 선수자신들이 잘알고 있을것이다. 그 대비책을 앞으로 착실하게 마련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이경우 꼭 지적하고픈 대목은 과거실적에 도취하여 혹시 自慢과 태만에 젖어들지 않았나하는 염려다. 그렇다면 승부욕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쟁상대의 실력을 打診해 보는 정보 빈곤의 허점에도 걱정이 간다. 하나 패배는 오히려 자산이며, 心機一轉의 補藥이 될수도 있다.

金메달 경쟁으로 지킨 종합 3위의 자리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진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金보다 훨씬 많은 銀과 동메달에 담긴 우리의 잠재력이다. 이 숨은 힘을 살려내고 지속적으로 길러 간다면 한국 스포츠의 앞날은 밝기만 하겠다.

인도 아시안 게임의 熱戰분투는 86년 서울대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승리는 부단히 우리에게 채찍이 된다. 장한 선수단의 개선에 국민은 뜨거운 환영을 보낸다. 동시에 20억 아시아人들의 위대한 前進과 幸福의 다음축제를 보다 참되고 화려하게 주관하려는 가슴의 고동을 모두들 실감하고 있다.

海外토픽

호주 머니用스크린

★證券시세·氣象예보제공

세, 경기전적, 가상예보등 각종 정보를비쳐주는 호주머니크기의 스크린이 미국에서 곧 시판될 예정.

데이터스피드사와 유에스·내셔널·퍼블릭·라디오사의 합작제품인 이 요술기기는 내년 후반부터 대당약4백달러(32만원)에 전화선을 통해 메시지도 보낼수있게 설계돼있는 이기기는 길이 15㎝, 너비 8㎝, 두께 2.54㎝로 외투호주머니에 집어넣을수있을 정도의 크기. 【벌린게임(美캘리포니아州)=聯】

濃縮설탕 抗生劑로

★깊은傷處치료에 매우效果

발목의 마히돌대학교 의사들은 농축된 설탕용액이 살갗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항생치료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사이사이賞을 수상한바 있는 프라베트·왈리씨와 3명의 조수들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고농축설탕용액을 사용하여 깊은 살갗상처를 입은 21명의 환자들을 단시일내에 모두 완치시켰으며 까지 영향입은 깊은 상처도 7~28일만에 치료했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치료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환자들은 더이상의 외과치료를 받을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방콕=TNA】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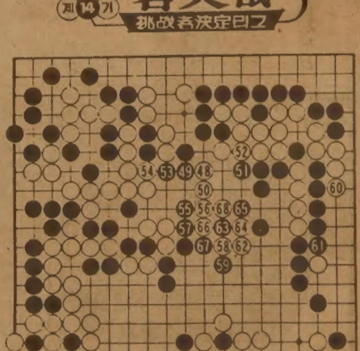
第4局 第9譜 148~168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姜 勳 〈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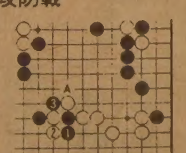
黑(4段) 李 相 激 〈1勝〉

우상귀 외곽의 白대마를 48로 달아난 姜4단은 한참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리고 눈길은 딴곳을 열심히 보고있었다. 당시는 물론 속셈을 알 수 없었지만 국후검토때 고백한바에 따르면, 黑이일단 공격을보류하고 참고도처럼 黑1로 내려섰다면 겁났다는 것이다. 白2때 黑3에 끊어버리면 다음에 「A」로 몰아맞는 수가 들어 그 제는 白대마가 살기어렵다. 그렇다고 白2까지의 2점을 되잡히면 낭패. 그런데 李4단이 黑49이하 55로 단도직입식 공세를 취하자 姜4단은 겨우 한시름 놓았다고한다. 『黑49로 참고도의 黑1이면 白은 어떻게 수없이 3쪽을 맞고 白대마의 안전을 피하게되지 이때만 黑이 1에서 2로 끊어내어 하면을 수습하면 白은 이길가망이 없었다』 李4단으로서는 黑49가 패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도 黑57까지 공격을 늦추지않으며 강수로 자신감을 키우고있었다.

黑63이하 67의 최강수단도 이때문인데, 보면 白도 사경에서 몸부림치는 형국이고 黑도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 【一凡】



커지는 攻防戰



노년회 송년파티

또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해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을 서로 나누며 더욱 복있는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서 뜻있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시 : 1982년12월18일(토) 오전11시부터
장소 : 한인회관
행사 : ①점심식사 ②영화상영 ③오락
＊회원 모두 회비를 냅시다.
문의 : ☎ 755－8079

사단법인한국노년회
회장 조 영 호

배재동창회
송년파티 안내

한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읍니다. 잠시 바쁜 일손을 멈추고 정동골 옛정을 되새기며 송구영신의 뜻깊은 밤을 보내려 합니다.

＊여러가지 경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8일(토) 오후6시～새벽1시
장 소 : THE CONROY HOTEL 3080 DUFFERIN AVE. (NORTH WEST 코너 AT LAWRENCE)
6시～8시 칵테일
8시～9시 디너
회 비 : 없음(단 주류 각자부담)
연락처 : 안창근 270－1794
김정웅 233－3484
박수웅 224－2491(B)

재토론토 배재동창회장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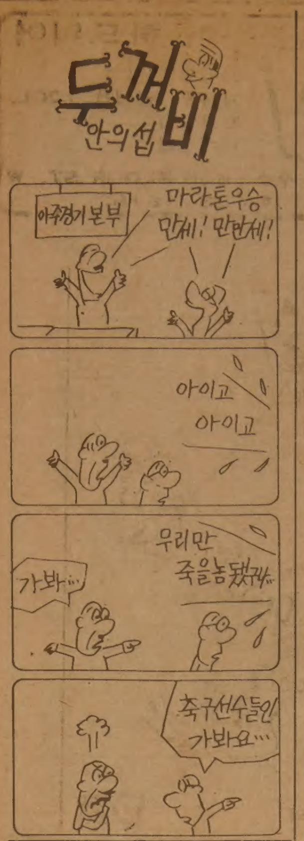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한국외국어대학
동문연말파티

저물어 가는 이해를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동문 연말파티를 가지려 합니다.
바쁘신중에서도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 소 : 호심레스토랑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시 일 : 1982년12월11일(토) 오후7시
회 비 : 30불(커플당) 15불(학생)
＊식사(한식·중화식·일식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 되었읍니다.)
연락처 : 494－4209 MR.김

한국외국어대학
동문회장 김영배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名門大경쟁 熾烈예상

大入학력고사 결과 高得點層(3백점이상 千5百명線) 두터워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 결과 고득점자층이 두터울것이 확실해 내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서울大, 高大, 延大등 이른바 명문대학과 이들대학의 인기학과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학력고사 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할 것같다.

이같은 예상은 일선고등학교의 입시전담교사와 입시계 전문학원등이 수험생을 상대로 조사한집계결과 고득점자층이 예년보다 예상밖으로 두터워졌기때문이다.

이들에따르면 예년의경우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가 8백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번학력고사에서는 2배가량인 1천5백명정도로 추산되고 2백80~90점대에서는 그폭이 더욱 늘어나고있다는것.

입시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히 학력고사에서 시험이 어렵거나 쉬워질 경우, 즉 난이도의 차이에 가장민감하게 반응하는층이 평균 2백50점대부터 2백80점대인데 이번 학력고사에서는 이같은 고득점학생들이 난이도가 얿어감에따라 대폭늘어나게 됐다.

이때문에 82학년도의 경우 학력고사 2백60점~2백80점대가 1만5천5백58명이었으나 83학년도는 두배가까운 3만명선으로 추계되고 있고 이들이 대입시의 경쟁률에 가장큰 영향력을 미치게될것으로 보여진다.

입시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종전까지 2백65점안팎이면 高·延大등의 합격권에 들었으나 내년도에는 학력고사의 전체평균치가 4~5점 늘었다해도 그보다 5점이 더 많은 10점이 늘어 2백75점이상이라야 무난하고 인기학과는 2백90점을 넘어야 안전권에들어갈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서울시내의 사립명문S고등학교의 경우 응시생전원이 평균5점이상 높아졌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2백50점 이상의 중간층고점자가 부쩍늘어나 9백명 전체학생의 3분의1을 차지했다.

이학교 진학지도담당교사는 『예년2백80점하던 高·延大의 인기학과가 내년에는2백90점을 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입시전문학원 출신 재수생들에게 더욱 두드러져 2백50점이상이 대부분 반수이상을 넘고있다.

J학원의 경우 이번에 고사를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상점수를 조사한 결과 2백점이하는 1명도없고 2백50점이상이 조사대상자 6백19명의 반이넘는 3백54명으로 나타났으며 2백70점이상이 24%인 1백48명이나 되었다.

구독신청 725-5566 725-6634
배달사고 724-6635 724-7397

점수별 大學別 예상 합격권

(합격권 점수는 ±2)

▲303점=서울大법대·의예 ▲295=〃사회Ⅱ·자연Ⅱ·경영·공학 ▲291=서울大 사회Ⅰ·사회Ⅲ·자연Ⅰ·치의예·延大의예 ▲289=서울大인문Ⅰ·Ⅱ·高大의예 ▲285=서울大 인문Ⅲ·교육Ⅱ·약학·자연Ⅲ·교육Ⅲ·高大법학·延大경제·가톨릭의大의예·延大치의예 ▲280=서울大교육Ⅰ·자연Ⅳ·延大경영 법학·정외·행정·기계·전자공 高大 경제·행정·경영·영문·정외 慶北大의예 釜山大의예▲275=서울大 농경제·지리·국민윤리·식품영양 高大기계공·전기·西江大 경제·경영 成大법학·梨大의예·中央大의예·법학·慶熙大의예·치의예·漢大의예·釜山大약학·치의예·慶北大치의예 ▲270=서울大농학、高大 사회·신방·국문·물리·화학、延大 불문·국문·사회·철학·물리·수학·전기공、西江大 영문·사회·전자계산、成大 경제·행정·영문·정외·약학、梨大 약학、中央大 약학·경영、釜山大 법학·전자과、慶北大 법학、忠南大 의예、全北大 의예、全南大 의예 ▲265=延大 교육·생물·요업、高大 영어교육·농경제·중문·교육·생물、西江大 정외·철학·신방·불문·물리·화학、成大 불문·통계、梨大 영문·전자계산、淑大 약학·제약 ▲255=中央大 법정·경상、漢大 정치·행정·경제、建國大 정법、慶熙 경상Ⅱ·행정·약학、東國大 법정、檀大 법학、釜山大 경제、경영·행정、영어교육、慶北大 경상·행정·영문、嶺南大 의예、忠北大、忠南大 약학、仁荷大 기계·전자·全北大、全南大 치의예

올해 大入학력고사 缺試率 4%로集計

문교부는 3일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의 응시자는 64만6천9백19명으로 총지원자 67만4천1백98명에 대해 4%의 결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시율은 지난해의 3%에 비해 1%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약혼녀에 60%지급

金得九선수 誠金등 분배合意

1억1천7백만원

故金得九선수에게 모아진 각계의 성금과 대전료、보험금등은 모두 1억1천7백47만6천2백원으로 최종집계됐으며 金선수의 어머니 梁善女씨(65)에게 40%、약혼녀 李英美양(20)에게 6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金선수의 사망전후에 각계에서 들어온 돈을 관리해온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일 梁씨와 李양등 金선수가족들과 함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같은 비율의성금분배를 공증하고 3일하오5시 KBC사무실에서 WBA사망보험금을 제외한 4천4백47만6천2백원을 분배비율에 따라 어머니 梁씨에게 1천7백79만4백80원、李양에게 2천6백68만5천7백20원을 각각 지급했다.

공증에는 李양이 金선수의 아이를 낳아 양육할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으며 만약 양육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양육을 의뢰한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李양이 받은 금액중 절반을 넘겨준다는조항도 들어있다.

金선수에게 들어온 돈의내역은 WBA의 사망보험금10만달러와 全斗煥대통령의 하사금、미국교민들이 보내온 2백73만2백원、서울의 빈소및 영결식장에 접수된 조위금 2백72만9천원、주식회사 화승등 각계조의금 1천8백23만5천원、東邦생명의 보험금 1천만원、金의 세계타이틀매치대전료 9백78만2천원등이다.

한편 WBA의 사망보험금 10만달러(7천3백만원)는 金의 양부 金鎬烈씨(65)를 수취인으로 정해 3일 KBC를 통해 WBA측에 지불요청했는데 이 돈역시 국내에 도착되면 같은 비율로 梁씨와李양에게분배전달된다.

이번 성금등은 당초 梁씨측에 60%、李양측에 40%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梁씨가 『내 아들의 아기를 갖고있는 李양에게 60%를주도록』 요구、이같이 결정됐다.

5行뉴스

◆行人 숨지게하고 뺑소니

【全州】2일 하오7시께 전북金堤郡竹山面竹山里죽산교부근에서 번호를 알수없는 승용차가 50대남자를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하고 달아났다.

연어떼 다시 찾아와

東海岸에… 하루7백96마리 포획

【東草】지난달 10일 동해안에 밀어닥친 격랑이후 한때 자취를 감췄던 연어가 대설(大雪)을 앞두고 동해안 하구에 다시 찾아오고 있다.

3일 襄陽南大川 연어채포장에 따르면 보름가량 구경할 수 없던 연어떼가 지난달 25일 이후 다시 찾아오기 시작、요즘은 하루 30~40마리씩 잡히고 있다.

南大川은 격랑이 휩쓸고간 15일간을 제외하고는 작년의 배에 달하는 연어떼가 찾아와 3일 현재 작년(4백마리)의 배에 이르는 7백96마리가 잡혔다.

이에따라 襄陽南大川에서는 지난해 60만개를 채취했던 연어알을 올해는 이미 77만9천개를 채란, 연어자원확보에 큰 진전을 보이고있다.

襄陽郡관계자는 요즘 연어는 동해안의 五十川·南大川·北川등 하천에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추세로는 이달 20일까지도 계속해 채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 원
삼가 인사 드립니다
원 장 한 정 철
내 과 과장 홍 성 훈
외 과 과장 배 신 행
정형외과 과장 박 준 식
산부인과 과장 유 장 희
소 아 과 과장 김 명 숙
구로구 오류동 33-74
덕 산 병 원
대표전화 682-2221~5

大都市에 「투쿠선課外」 성행

주부들이 中3英語 배워와 子女에 가르쳐

主婦教室등 이용…1週3회 受講

요즈음 서울、釜山、光州등 대도시에서 유행중인 주부교실이 「변태과외」 장소로 탈바꿈중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까지 나온 3、40대 주부들이 학원의 주부교실에 나가 중학과정 영어를 국정교과서로 배워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친다는 것. 이를 두고 주부교실근처에서는 당구의 용어인 투쿠션 과외라고 부른다.

지난80년7월 과외금지 조치이후 VTR과외, 드라이브과외등 해괴망칙한 탈법과외들이 당국과 숨바꼭질을 해오더니 이제는 「투쿠선과외」라는 신종과외까지 창안해낸 셈이다.

이를전해들은 학부모들은 과외금지라는 전체사회의 약속을어기고 과외를하는 극성주부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결여를 나무랐고 전문가들은 이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위배된다고지적, 단속으로 없애야 한다는 강경론을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江南지역일대가 가장 투쿠선과외가 심한지역으로 밝혀졌다.

江南지역의 외국어 학원은 70여곳인데 이중50여곳이 겉으로는 「주부교실」 「외국어회화」등 명칭을 붙여 사실상 「투쿠선영어 과외」를 하고있다. 이들 학원은 어머니들에게 1주에 3회, 각 1시간씩 1만5천원씩 수강료를 받고 중학영어를 가르치는실정이다.

盤浦洞 모쇼핑타운 M학원은 30~40대의 주부들을상대로 국정영어교과서를 교재로 중학과정영어를 회화를 곁들여 가르치고있다. 이 학원에서 수강하고있는 주부 崔모씨는 해외여행자유화로 회화의 필요성을 느껴 수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의내용이 여행에 필요한 회화뿐아니라 문법등 중학수업못지않은 체계를 갖추고있어 「투루선과외」인상이 짙다.

崔씨도 『중1에 다니는 딸의 영어지도에 무척 도움이 돼 일거양득』이라며 간접과외효과를 인정했다.

이학원직원 白모양에 의하면 강의실을 찾는 「어머니학생」들은 아는사이들로 삼삼오오짝을지어 수강하러 오며 숙제도 학생못지않게 열심히 해온다고 귀띔했다.

또 江南區方背洞 S아파트근처 D외국어학원 주부반도 30~40명 단위로 2개반으로 나눠 중학영어를 가르치고있다. 이학원 원장 陳모씨는 『주부들이 보통열심이 아니다. 주부들은 약6개월이면 중학전과정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상당수가 과외금지후 자신들이 공부할때와 다른영어학습법을배워 자녀들을 지도하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것만봐도 주부들이 상당한 학력수준을갖고있으며 영어를배우는것이자녀를가르치기위한것임을쉽게알수있다.

新沙洞의 H학원총무 朴모씨는 『2백여명의 주부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민이나 여행에 필요해 배우는 사람도 있으나 60%이상이 자녀지도를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학원선전 팸플릿이나 포스터엔 「귀댁 자녀들의 영어를 자모께서 직접 가르칠수있게 강의한다」는 내용이 으레 나붙어있다.

가뜩이나 변태적인과외가 단속으로 자취를 감춰 모처럼 우리사회에 자녀학력경쟁에 페어플레이 무드가 뿌리를내리려는 참에 어머니가 직접 과외를 통해 「지식」을 불어다 자녀에게 전하는 「투쿠션과외」는 적잖은 잡음을일으킬 소지가 많다.

서울瑞浦高 영어교사 申成男씨(37)는 『주부들이 학원에서 중학영어과정을수강、자녀를 지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신종과외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申씨는 이런 과외가 성행하면 있는집 자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과외근절의 정부의 시책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이 투쿠션과외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것이다.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제9조의2(과외교습의제한)에는 ①항에 『누구든지 기술·예능·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면서재수생이나고교나 대학을 입학코자하는 사회인의 경우에는 과외를 받을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

그러나 이번 변태과외를 받는 주부들은 대학교육등을 이미 받은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것이지 고교나 대학에 들어가는것을 목표로 공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봐야한다.

이경우 과외교습을 한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다. 【蘇熙濬기자】

◇「겨울안개」속 조심조심… 서울지방에 3일상오 짙은 안개가 끼어 출근길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기상대는 주말에도 안개가 끼겠다고 예보했다.

大邱、어린이 感氣극성

【大邱】최근 大邱지방에서는 초겨울의 심한 일교차로 어린이들사이에 감기가 크게 성행、각 국민학교에서 하루평균 20명에서 60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결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大邱市교위가 시내각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감기증세 어린이와 이날 하루동안 결석생수를 조사한결과 大邱국교는 3백여명의 어린이가 감기를 앓아 이중 55명이 결석했으며 大明국교는 환자1백명 가운데 60명이、인지국교는 7백50명중 30명이 결석했다는 것이다.

또 62학급인 아양국교는 1천2백40명의 어린이들이 감기를 앓고있는 가운데 이날 31명이 결석을 했고 이현국교는 8백60명중 12명、영신국교 90명중 18명、칠곡국교는 21명이 각각 감기때문에 결석했다.

한편 大邱市교위는 3일감기를 앓는 어린이가 많은학교는 교장재량으로 임시휴교조치를 할수있도록 했다.

포근한 週末…아침엔 안개

12월 첫주말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기온은 포근한 편이나 구름이 많고 서울및 중부지방에는 짙은 아침안개가 예상된다.

3일상오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은 영하0도5분으로 예년보다 3도2분이 높았는데 시정거리 1백m이하의 짙은 안개로 출근길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었다.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요즘 안개의 특징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면과 공기가 습윤한 상태에서 발생한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냉각、복사무(霧)가 생기고 있는것인데 우리나라를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속도가 매우 느려 아침에 낀 안개가 낮시간 동안에도 걷히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인공腎臟센터 생긴다

내년3월부터 國立醫療院내에

값비싼 인공신장기로 살아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인공신장센터가 국립의료원에 설치돼 내년3월부터 혜택을 주게된다.

보사부는 3일 국립의료원에 현재 3대뿐인 인공신장기를 23대로 늘리기로하고 의료보험 수가를적용, 소득이 낮은 일반환자의 1회 인공투석비용을 현행 8만원내외에서 4만4천원선(국고부담 2만1천원별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보험환자는 현행대로 1회 3만9천원이며 의료보호환자는 전액무료인 1종이외에는 2만2천7백50원을 내게 돼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부전증 환자는 알려진 숫자만 7천5백명으로 추정되며 투석치료중인 환자는 3백35명에 이르고있는데 20개병원에 인공신장기 98대가 설치돼있으나 이중74대가 서울에몰려있다.

이번에 국립의료원에 증설되는 인공신장기 20대는 美트라베놀회사에서 대여하는 것으로 보사부는 지난달23일 장비및 소모부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甲川서 죽은 「剝製황새」의 辯

“安息處를…”

“진정한 保護는 우리를 그냥 두는것…”

나는 최근에 박제가된 황새입니다. 지난달17일 충남大德의 甲川에서 죽음을당한 나는 한갓 장식물로 서울 慶熙大에 남게됐습니다. 사인을 규명한다는등 인간들의 모진 손길에 3번죽었던 나는 모처럼 찾아온 한국땅에서 껍질만 남게된 거지요.

나의 죽음을 돌아보건대 잘못은 결국 甲川의 위험성을 모르는채 철없이 노닐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있다고 할수있을지도모릅니다. 우리들 황새는 인적이 드물고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다니는 새입니다. 甲川은 그런점에서 우리들이 괜찮아보인다해서 선택했던 곳이었으나 사이가 아니라는 독극물이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초가삼간 지붕에서 떨어지는 굼벵이도 제속이 있다」는게 한국의 속담이건만 어리석기 짝이 없어라. 나는 어찌 그것을 몰랐을까.

나이가 두살밖에 되지않아 철없기 때문이라고 탓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 새는 사람처럼 연령으로써 진보하지를 못하는 숙명적 생태를 지니고있오. 나의부모、친구들 누구나 나처럼 변을당할 위험은 마찬가지지요.

다시 돌이켜보건대 나는 사람들 때문에 몹시 지쳐있었오. 우리들이 처음 甲川에 나래를접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관찰한다는 명목으로 몰려와 안심하고 쉴자리가 없었오. 그러다보니 자연히 적합하지못한곳으로 쫓겨다니게됐고、독극물을 「섭취」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되었오. 철없는 어린이가 신기한 장난감을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망가뜨린 경우와같다면 비유가 지나친는지….

나의 사인을 두고도 폐수냐 독극물이냐、사람들은 책임을 벗어나기위해 서로 미루는 실랑이를 벌였으며 최근에는 甲川에서 수은등 중금속이 나오지않아 수질오염이 직접사인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렇다고 해둡시다. 다만 우리가 본 「삼천리 금수강산」은 이제 옛말、「폐수강산」이란 말이 오히려 어울릴 땅이라는 점은 분명하오.

한마리 새가 덧없이죽어 시끄러워지는 세상은 어차피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되거나 인간의문제가 다급해지지 않는 세상일 것이오.

우리들을 진정 보호하는 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는 일이오. 우리 식구는 지금 전세계에 7백여마리밖에 되지 않을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오. 자연보전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살아남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해줄 참이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피하지 않도록 그 땅을 찾아가지말라』고. 그리고 박제가 돼버린 나를 보라고. 【任龍淳기자】

Turtle Mother of Pearl Inc.

각종 자개제품이 클링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뚜벅 뚜벅 끈기있고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코저 걷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 각종 자개제품 일절
생산부 : ○커피테이블
○보석함
○구절판
○꽃 병
○자개벽걸이
○문 갑
○예기장 등등…소품부터 대품에 이르기까지
수선부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Insurance Work)

★ 특별주문 환영합니다 ★

공장 : 361 Clinton St. Tor. Ont. M6G 2Y7
☎ : (416)530-4364, 536-8018

거북이나전칠기공예사
대표 이 정 석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INVENTORY CLEARANCE SALE

December 1 - December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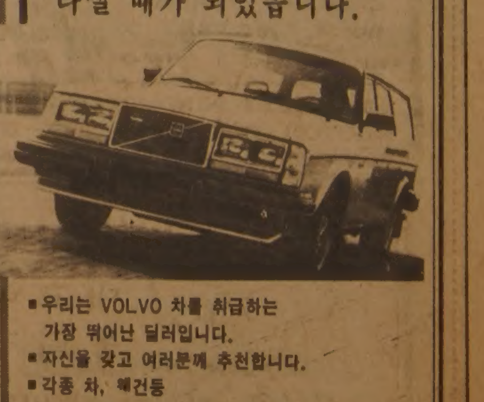
		SPECIAL
Regular Chocolate Bars(Cadbury, Neilson, Rowntree, Lowney)	36x40¢	$ 9.99
Cracker Jack	36x40	9.99
Beechnut cough drops	24x30	4.95
Hershey Regular Chocolate bars	36x40	9.79
Lee's Snowball	36x29	6.79
Thick Bars (Cadbury, Neilson, Rowntree)	36x55	13.49
Family Bars (Cadbury, Neilson, Rowntree)	24x99	15.09
McCormick's Penny Candy	120x.2	.99
Big League Chew (Reg., Grape, Popeye)	12x59	4.59
Leaf Ball Gum 25¢	24x25	3.85
Leaf Ball Gum 10¢	40x10	3.19
Leaf Faceoff Ball Gum 10¢	48x10	3.09
Icy Cups	144x.5	4.75
Mo Jo Candy	400x2 for .5¢	5.59
Maynard Wine Gum	24x30	4.75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Season's Greetings From All Of Us At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S.T.S Motors

이제는
VOLVO를
타실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웨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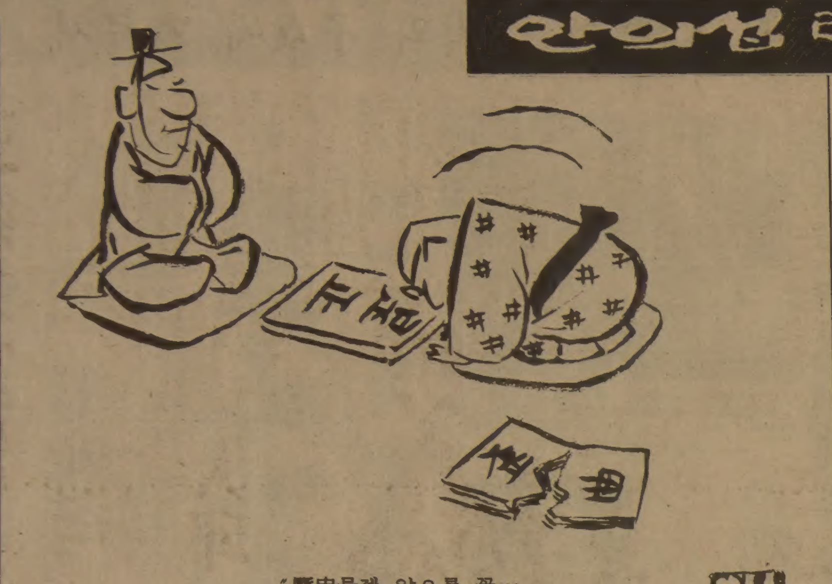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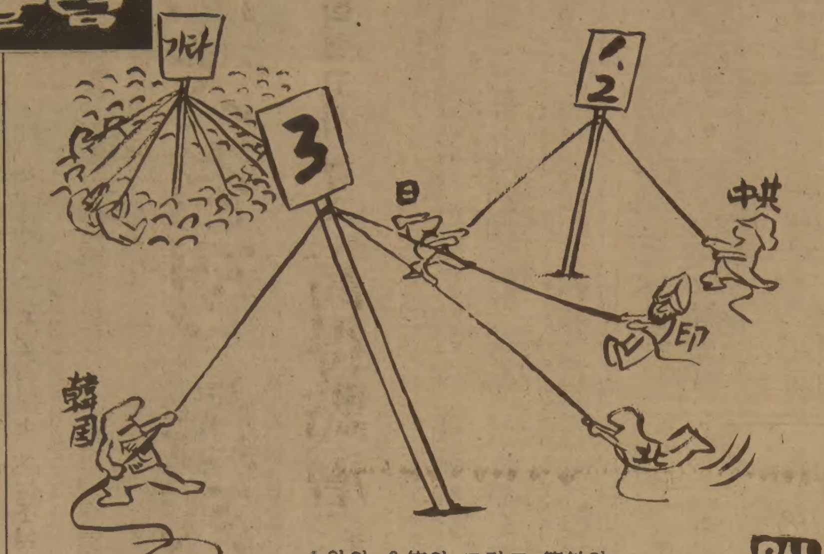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歷史문제 앞으로 꼭…"



1위와 3位와 그리고 等外와…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몸에 좋다니 할 말은 없지만, 뱀을 먹고 개구리를 먹는 일은 생각해볼 일이다. 그렇게 식성 좋게 먹으니 건강도 하겠지만, 그런 거 먹지 않는 서양 사람들 체력이나 체격을 보면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 추위가 들어서도 땅속의 개구리를 잡아낸다고 법석을 떠는걸 보면 그 터무니없는 「건강신앙」이 한심스럽다. 아뭏든, 서울 복판에 있는 뱀탕집에 도둑이 들어 우글거리던 뱀 3백60마리를 몽땅 훔쳐 달아났다. 그 중에는 한 마리에 20만원 이상 나가는 구렁이도 있다니 도둑은 한탕 실하게 잡은 셈이다. 이번주 「기자수첩」을 펼친다.

驛광장을 駐車場으로 써먹어 돈 번 「現代版 봉이 김선달」

경양식보다 양장점 경영요구 부인 죽여

때만되면 각성제 남용 몸망친 입시생들

뱀탕집 털 배짱도둑

▲23일 상오7시반께 서울중구북창동13의13 팔도사전강원(주인 박영규·34)에 도둑이 들어 구렁이 5마리(싯가1백58만원)、살무사 1백마리(싯가 48만원)、칠점사 25마리(싯가1백만원)、꽃뱀 2백30마리(싯가 40만원)등 뱀 3백60마리를 훔쳐 달아난것을 주인 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朴씨에 따르면 22일 밤8시40분께 가게문을 닫고 퇴근했다 이튿날 출근해 보니 가게 셔터문 열쇠가 망가져 있고 가게 안 뱀통에 넣어뒀던 뱀이 한 마리도 없이 빈 통만 남아 있었다는것。

경찰은 뱀을 다룰 줄 아는 전문 땅꾼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3일 양화점에서 부츠를 훔치다 들킨 高모양(19·서울서대문구미근동)등 재수생 4명을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高양등은 지난 21일 하오5시반께 서울노고산동49의55 미소래 슈즈살롱(주인 許昌德·30)에 들어가 金모양(19)이 구두를 신는 체하며 흥정을 하는 동안 高양등 3명은 진열장에 있던 여자용 앵클부츠를 각각 한 켤레씩 바바리코트속에 숨겨갖고 나오다 주인에게 들켰다는것。

▲지난 15일 밤10시반께 서울 은평구응암동627의4 朴호준씨(50·회사원)집 문간방에서 朴씨의 딸 天淑양(21·S여대 불문과3년)이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져 있는것을 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朴씨에 따르면 天淑양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 병원치료까지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자 평소 이를 비관해 왔는데, 이날 회사에서 퇴근, 집에 돌아와 보니 연탄불을 피운 화덕이 방안에 놓여진 채 숨져 있었다는것。

회귀 족제비 화제

▲등부분의 털 색깔이 갈색이고 배는 흰색인 회귀한 족제비 한 마리가 잡혀서 화제。

강원도春城군史北면古呑라야산에서 이 마을 金仁喆씨(45)가 지난 5일 풀베기를 하던중 막대기로 내리쳐 잡아 강원도 입업시험장 냉동실에 보관중인 이 족제비는 몸길이가 18㎝、무게 47·6g의 새끼 족제비이다。

강원도 입업시험장의 崔文吉장장(42)은 『문헌상으로는 함경북도 茂山지방에서 이같은 색깔의 족제비가 잡혀 무산 족제비로만 알려졌을 뿐이다』면서 『이 분야 전공 생물학자에게 이 족제비의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安大元씨(26·강서구목동318의231)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15일 밤10시50분께 부인 裵仙씨(25)와 함께 경영하는 「웨스트·사이드」 경양식집(중구충무로1가24)에서 영업을 끝내고 자가용차를 타고 귀가하던중 11시반께 강서구목2동41 앞길에 이르렀을 때 평소 디자인공부를 배우는 부인 裵씨가 『경양식집 그만두고 양장점을 경영하자』고 요구, 이 문제로 다투다 부인 裵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것。

공금훔친 서무과장

▲서울태릉경찰서는 23일 서울종로구필운동 B여자전문대학 서무과장 池善浩씨(38·서울동대문구망우3동518의10)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池씨는 지난 3월5일 이 학교교비 3천만원과 기성회비 2천만원등 모두 5천만원의 학교공금을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 예탁시킨뒤 지난 7월3일 학교 몰래 이를 빼내어 달아났다가 22일 경찰에 검거됐다는것。

<그림·楊大雄>

▲京畿도富川시 소유의 공유지인 부천 남부역 광장을 제 멋대로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비를 받아 돈을 벌고있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있는데도 이를 행정당국이 모르는 척하고 있다。

富川시深谷동486 朴모씨(65)는 부천 남부역광장이 시 소유지인데도 광장 왼쪽편을 주차장으로 활용, 광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부터 1회에 3백원씩의 주차비를 불법으로 받고있는 것이다。

朴씨는 몇해 전부터 부천역광장의 도로점용허가를 시당국으로부터 받아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을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11월1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주차장이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점용허가가 취소됐는데도 계속 주차장영업을 해온것。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도 주차비를 받고있는 줄 몰랐다』고 발뺌한뒤 『당장 朴씨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뒤늦게 으름장을 놓았다。

수험생 각성제복용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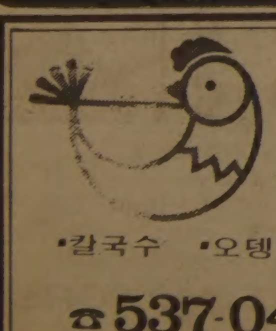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이 각성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麗水시館門동 L약국의 경우, 최근 하루 평균 10여명의 고교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잠을 쫓기위해 각성제를 사서 복용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머리가 맑아지는것으로 알려진 모제약회사의 약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고있다는것。

전문의들은 잠을 쫓기위해 각성제를 복용한 경우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더 심각해질뿐 아니라 환각상태를 일으킬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수면과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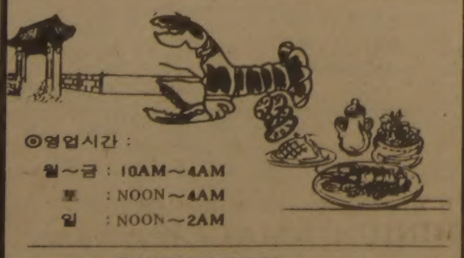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
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537-0432
658½ BLOOR ST. W.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月桂冠주인은 숨어있었다”

「選手1년」金梁坤이 亞洲制覇

침체의 늪서 솟아오른 「황금의 大魚」

한국마라톤 最高의날

34㎞지점서 北韓선수 제치고 先頭 日·印 2·3位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제9회 아시안게임 폐막을 이틀앞둔 2일 한국선수단은 마라톤우승으로 최고의날을 맞았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金梁坤이 우승을 차지하자 한국선수단은 崔允喜·允姬자매의 金·銀퍼레이드에 이어 또한번의 감격을 맛보았다. 金梁坤의 이날 기록은 한국 최고기록에 6분가량 뒤졌으나 침체에 빠져있던 한국마라톤을 다시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 한국선수단이 뉴델리서거둔 가장보람있는 성과로평가되고있다.

8개국 1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하오 1시30분(한국시간하오5시) 이곳네루 스타디움을 출발한 레이스에서 金梁坤은 초반부터 북한의 강호 소창식、일본의 미주구보와 함께 선두그룹을 유지、반환점을 1시간9분2초의 기록으로 3번째로통과했다.

이때 선두는 평소 2시간 10분대를 마크하고있다는 소창식、일본의 미주구보가 金보다 1백여m앞서 달렸다.

기온은 섭씨29도、습도 80%로 마라톤하기에는 매우 더운날씨였다.

초반에 레이스를 늦추는작전을 편 金은 레이스시작 1시간40분이 지난후 스피드를 내기 시작、32㎞지점서 미주구보를 따라잡고 34㎞지점서 피로로 페이스가 갑자기 떨어진 소창식을 제치고 선두에 나서 전력질주、1위로 감격의 테이프를 끊었다.

마라톤대회에 4번째 출전하여 아시아제1의 마라토너로 성장한 金은 레이스가 끝난후 『나의 우승을 믿은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나는 며칠전부터 우승을 자신하고 있었읍니다. 초반에 레이스를 줄이고 종반에 스퍼트한작전이 성공한것 같읍니다』고 소감을 말했다.

더위에 남달리 강한 金은 레이스초반 북한 이종형에게 선두를 내맡긴채 日本에이어 32㎞지점까지 3위로 착실히 페이스를 지켰다.

한국은 이날 金梁坤과 여자배드민턴복식서 金메달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선수단이 당초목표로했던 金메달 20개를 확보했으며 3일 열리는 복싱9체급 결승전에서 4~5개의 金메달을노리고있다.

이번 대회는 3일 모든 경기를 마치고 4일 폐회식을 거행한다.

◇한국의 金梁坤(中)이 금메달을 목에걸고 2위아베(左) 3위쿠카파의 손을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델리電送=聯合】

◇있는힘을 다쏟고… 24년만에 마라톤 한국의 영광을 되찾은 金梁坤이 사투를 끝내고 코치의 품에 쓰러지고있다. 【뉴델리 2日AP電送=聯合】

제9회 아시안게임

오늘 閉幕、한국 3位

中共、金59개로 日本의 9連覇저지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영원한 전진」을 바라는 아시아인들의 잔치 제9회아시안게임은 4년후 서울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보름간 뉴델리 아시아드를 밝혀주던 성화가 4일 꺼짐으로써 작별을 고하게된다.

3일 하오 최종경기일정을 남긴 현재 차기 대회 개최국인 한국은 마라톤과 수영、테니스、궁도、사이클에서의 개가로 金메달 20개、銀메달 26개、銅메달 35개등 대회참가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려 종합3위를 굳혔다.

한국은 3일밤 복싱12개체급중 9개체급이 결승에올라 金메달추가를 바라고 있으며 남자농구팀이 챔피언 중공에 도전、여자농구에서 당한 패배의 설욕을 노리고있다.

女子농구 中共에분패 銀

女배구도 日本에완패 銅

여자배드민턴 복식에는 한국팀끼리 결승에 올라 金·銀의 주인을 가린다.

2일밤 한국은 무명신인金梁坤이 마라톤을 제패하고 배드민턴의 두복식조가 중공·일본을 누르고 복식결승에 오르는 이번대회 최대의 경사를맞았다. 그러나 2連覇를노리던 여자농구팀은 중공의 장신벽을 뚫지못해 75—67로 패해、銀메달에 그쳤으며 여자배구팀도 일본에3—0으로 완패、銅메달권으로 물러났다.

10억인구의 중공은 3일현재 金메달59개를 확보함으로써 남녀농구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우승、30년간 아시아·스포츠를 지배해온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최강국으로등장했다. 중공신문들은 우승이 확정된 3일 아시안게임에 세번째참가한 중공의 우승을「쾌거」、「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축했다.

중공은 3일밤 남자농구에서 한국과 남·녀배구에서 일본과 우승결정전을 갖게되며 배드민턴 남자단·복식에서서金메달추가를 노리고 있다.

일본은 현재 金메달56개로 남·녀배구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중공을 앞지를수 없게됐다.

金메달 14개의 북한은 복싱4개체급결승에、金메달12개의 주최국 인도는 3개체급결승에 올라 4·5위를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있다.

사격

한국은 2일 사격최종일센터파이어 권총단체에서 2천2백9점으로 4위에 머무는 저조함을 보였다.

북한은 이날 센터파이어권총 개인과 단체를 모두 휩쓸며 기염을 토했다. 북한의 소길산은 개인과단체우승으로 사격부문서 7관왕이 됐다.

북한은 사격에서 모두7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센터파이어권총단체 ①북한2、333 ②중공2、305 ③태국2、302 ④한국2、296

▲센터파이어권총개인 ①소길산(북한) 587 ②중공584 ③태국584

▲스키트개인 ①추창후(중공) 193 ②마일남(북한) 191 ③김기원(한국) 188

배구

폴리그 최종5차전에서 한국은 李恩敬과 金貞順이 분전했으나 노련한 에가미와 미스야가 엮어내는 높은방어와 빠른속공에 말려 일본에 3—0으로 완패당했다.

이로써 한국은 64년 동경올림픽의 첫대결이후 지금까지 대일전에서 31전3승28패를 기록했다.

▲여자리그 5차전

일본 3 (15-4 15-10 15-10) 0 한국
(4승) (3승2패)

육상

▲남자1천5백m=①왈레·다랄라(이라크)3분43초49 ②히라이·유다까(일본)3분45초20 ③야다브(인도)3분45초62

▲남자투원반=①리웨이난(중공)58m50 ②롤립·싱(인도)53m50 ③리첸(중공)53m34

▲남자5천m=①마산리(일본)13분53초74 ②장·쿠웨이(중공)13분58초09 ③루마르(인도)13분59초90

▲여자높이뛰기=①다젠(중공)1m89 ②히사요(일본)1m87 ③양·웬인(중공)1m85

▲여자1천5백m=①장영애(북한)4분18초40 ②주트시(인도)4분19초22 ③김옥선(북한)4분23초33

▲남자1천6백m계주=①일본3분06초75 ②이라크3분08초34 ③중공3분09초57

▲여자1천6백m계주=①일본3분37초44 ②인도3분38초32 ③중공3분39초84

전참피언 泰보라싱 교통사고입어 숨져

【방콕AP=聯合】 한국의 金性俊에게 타이틀을 넘겨주었던 前WBC 플라이급챔피언 네트로이·보라싱이 태국동서부 도시인 사꼰나콘市에서 2일밤 모터사이클 사고로숨졌다.

올해 25세인 보라싱은 이날 모터사이클을 타고집으로 가다 전신주에 부딪쳐 참변을 당했다.

◇메달중간집계

<3일현재>

	金	銀	銅
①중공	59	48	41
②일본	56	51	44
③한국	20	26	36
④북한	14	18	20
⑤인도	12	17	25
⑥이란	4	4	4
⑦印尼	3	3	7
⑧몽고	3	3	1
⑨파키스탄	3	1	5
⑩필리핀	2	2	9
⑪이라크	1	2	4
⑫쿠웨이트	1	2	3
⑬말聯	1	0	3
⑭싱가포르	1	0	2
⑮시리아	1	0	1
⑯태국	0	3	4
⑰레바논	0	1	0
⑰아프가니	0	1	0
⑲홍콩	0	0	1
⑲바레인	0	0	1
⑲베트남	0	0	1
⑲카타르	0	0	1

金梁坤 스토리

서울국제大會때 데뷔…가난으로 한때 授業포기

불굴의 투지로 묵묵히訓鍊에만 열중…끝내榮光

암흑의 24년, 한국마라톤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 金梁坤(22)은 육상계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라톤 꽃나기. 금년3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19분41초의 기록으로 11위를마크, 처음 국제대회에 데뷔했을 정도다.

그가 뉴델리의 험로 1백리를 달려 아시안게임 4반세기만에 처음 마라톤우승의 금자탑을 세우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다. 金의 승리로 한국마라톤은 길고 암울했던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찾게되었다.

『우승하리라고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읍니다. 마지막 10㎞를 남기고도 좋은 컨디션이었지요. 두명을 제치고 선두에 나설수 있었읍니다』

날씨가 더우니 서두르지 말라는 코치의 지시대로 그는 착실한 레이스를 운영, 뜻밖에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불굴의 투지, 곰처럼 혼신의 힘을 기울인 훈련, 찢어질듯한 가난. 이런 것들이 일본과 북한의 강자들을 제치고 아시아마라톤을 제패한 金梁坤의 전 재산이다.

全州商高시절 5천m, 1만m선수로 전국랭킹 5~6위급. 한국체대에 진학한후에도 선배들의 그늘에 가린채 큰빛을 못본채 묵묵히 훈련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액운이 그를 훈련에만 전념토록 버려두지 않았다. 대학 1년의 낭만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두형이 차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金梁坤은 2학기 수업을 포기, 살림에 쪼들리는 아버지를 돕고 누이동생의 학비를 마련키위해 학교를 떠났다. 만류하던 崔昌植교수 앞으로 편지한장을 남긴채.

崔교수와 전북육상연맹 조순철전무의 끈질긴 설득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온 金은 자신의 시름을 잊기위해 더욱 훈련에만 정진했다.

1m70㎝, 64㎏. 마라토너로서는 다소 살이 찐 체질이었다. 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뛰어야했다.

지구력과 스피드향상을 위한 성실한 훈련, 그리고 더위에 지칠줄 모르는 강인한 정신력을 인정받아 그는 마침내 아시안게임 출전대표로 발탁되었으며 최후의 승자로 영광의 길을 달릴수 있었다. 【신문공동취재단】

이제야 우리 마라톤에도 햇빛이

— 58년 東京아시안게임 覇者 李昌薰씨

“내가 우승한 기분 中興·支援 계기로”

◇李昌薰씨

『전파를 타고온 첫 승리의 소식에 귀를 의심했읍니다. 너무나 뜻밖이고 믿어지지않는 낭보였읍니다. 부진한 기록, 답답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게 엊그제일 아닙니까』

24년만의 쾌보를 전해들은 1958년 동경 아시안게임 마라톤 우승자 李昌薰씨의 음성은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멀어져만 가던 마라톤이 아니었읍니까. 저는 지금 제가 우승한 것과 똑같은 기쁨에 들떠있읍니다』

「뒤로 달리는 마라톤」、「거꾸로만 달려가는 마라톤왕국 한국」。마라톤 대회때마다 대문짝만하게 신문지면을 장식하던 한국마라톤의우울한 현실。악몽과도같은 나날이었다.

『요즈음 육상연맹일을 맡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자랑스러운 후배 金梁坤선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 그런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마라톤이 부진과 굴욕의 암울한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빛,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것만이 지금 가장 큰 의미일 뿐이다.

한국마라톤의 마지막 주자로 동경하늘에 태극기를 올렸던 李昌薰씨도 이번대회의 성적에는 비관적이었다.

일본, 북한선수들과의 기록비교에서 한국은 적수가되지못했다.

82년9월 북경국제대회에서 북한의 우승자 이종형은 2시간14분대, 3위 소창식은 2시간16분대를기록, 그러나 명소모두가 10분대를 마크하는강호들이었다.

여기에 일본은 2시간9분대의 세꼬, 소·시게루, 소·다까시등 기라성같은 마라토너들을 보유하고있다.

2시간16분대의 최고기록 보유자 文興柱마저 일선에서 퇴진한 한국진용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통쾌하게도 제 실없는 걱정은 깨어져 버렸읍니다. 金梁坤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낯선코스에서 무더위와 강적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다면 승리에 필요한 마라토너로서의 기술과 정신력을 의심할 수있겠읍니까』

李昌薰씨는 金梁坤의 우승이 결코 지나가던 재수를불들어 온것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올림픽이 눈앞에다가오고있다.

반생을 마라톤에 쏟은 李昌薰씨의 소망은 사그러진 한국마라톤전통에 金梁坤이 다시한번 불꽃을 당긴는것이다.

세계의 강국으로 자처하던 한국마라톤은 그동안의 침체로 고난과 서러움 속에 명맥을 부지하기에도 힘겨운 지경이었다. 오늘의 승리로 그동안의 실의를 일소하고 희망찬 새출발을 맞게 되기를 李昌薰씨는 갈구하고 있다.

인기종목에 빼앗겼던 유망선수들을 되찾고 범사회적인 마라톤 지원책이 마련되어 마라톤왕국을 재건하는것이 그의 간절한 꿈이다. 【方錫鶴기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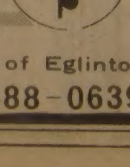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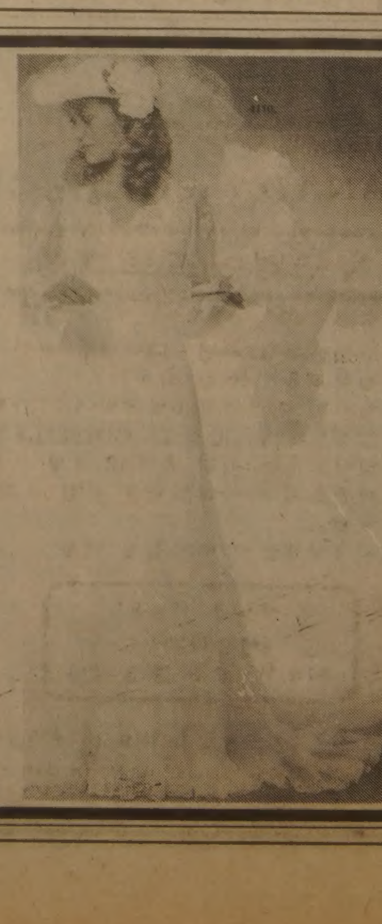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신문에 안난 現場」

목사 가짜 法人세우고 無許유아원 양산

산하中·高서거둔 교비 재단맘대로 유용

양을 유지할수 있게 해줄것을 당부했다.

교사중 납입 착복목사

▲치안본부 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용산구 도동1가 34의21 중앙교회 목사 李應茂씨(41)를 교육법및 아동복지법위반과 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81년9월 당국의 허가도 받지않고 중앙교회에 대학 2년과정의 어린이 선교신학교와 1년과정의 대학원 간판을 내건 후 京畿도始興군 軍浦읍山本리830의53 대지 5천6백여평에 교실 21개와 강당등을 갖춘 분교를 차려 교육사업을 펴온 혐의다.

李씨는 81년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자격이 없는 金允植목사등 15명을 교수로 채용, 선교신학교에 학생 1천5백87명과 대학원에 2백61명을 수용하여 보육선교학을 교육시키면서 학생들로부터 입학금과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7억7천2백22만원을 징수했다는것.

李씨가 교장과 원장을 겸하고 있는 신학교는 졸업생에게 유아원교사 자격증을, 대학원 졸업생에게는 유아원장및 교사자격증을 주었다.

李씨는 또 81년11월13일 탁아시설및 상담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선교원·어린이집 설립허가(제620호)를 받아 이사장에 취임한뒤 서울동대문구이문동315의15 동서울교회(목사 최수근·35)등 전국 4백27개 교회에 李씨 명의의 유아원시설증인서를 발급, 무허가 유아원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20일 李觀浩씨(22·서울성동구금호동2가1351)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李씨는 지난 15일밤11시께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258 이윤근씨(26·상업)집에 침입, 李씨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백40만원, 자기앞수표 2백만원등 모두 3백40만원을 훔친 혐의.

그런데 李씨는 훔친 돈으로 16일 저녁부터 6만3천원짜리 호텔잠을 잤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고 아가씨에게 팁으로 10만원씩을 주는등 하루 평균 46만원씩 3일 동안 1백40만원을 썼다는것.

현금을 다 쓰고난뒤 1백만원권 수표를 바꾸려다 경찰에 잡혔는데 절도 전과 2범이라고.

▲학교법인 協成교육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大邱시교육위원회는 23일 산하 각 중고교로부터 재단에 불법전입·전용된 교비가 모두 7억7천만원인 것을 밝혀내고 전입금의 사용처를 계속 조사중이다.

감사반은 불법전입된 교비7억7천만원중 3억원을 산하 학교의 시설투자에 충당하고 1억7천만원을 강당신축에 사용하는등 4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산하 학교에 재투자한것으로 확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의 용도가 분명치 않아 이를집중적으로 캐고있다.

감사반은 금명간 감사를 마무리짓고 문교부에 결과를 보고한뒤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文湧用씨(23·무직·서울강동구천호동397의183)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文씨는 이날 하오1시반께 兪明濟씨(61·경기廣州군東部읍下山谷리464)의 회갑 잔치가 벌어진 서울강동구천호동425 음식점 동일회관 앞을 서성대다가 문 앞에서 축하금 접수를 보던 兪씨의 동생 又濟씨(47)가 계산을 끝낸뒤 축하금으로 들어온 현금 1백65만원을 큰 봉투에 넣어둔 채 잠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봉투를 집어들고 그대로 달아났다는것.

文씨는 차도를 건너 맞은편 시장 골목으로 2백m쯤 달아나다 뒤쫓아온 兪씨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는 지난 18일 金戊鮮피고인(43·숙박업·서울 도봉구 공릉동 653의7)에 대한 과실상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개를 자극해 물렸다면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 벌금5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개주인 金씨에게 무죄를 선고.

사건記者 수첩

소주·오징어등 도르래식 공급 일당잡혀

무혐의부탁 사기범 뇌물 뿌리친 청백리

金피고인은 지난 81년7월14일 하오8시께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동대문구 전농동352의5 여관에서 이웃에 사는 金모씨가 자기 딸의 옷을 문 진도개의 목을 누르는 바람에 개가 다시 金모씨를 물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자 金모씨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었다.

재판부는 「비록 개의 끈이 풀려 있었다 하더라도 개의 목을 누르다가 오히려 개에게 당한 것이므로 개 주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공사못딴 현장 공갈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건축업자 閔大善씨(46·서울 마포구 염리동 14의317)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閔씨는 지난 1일 하오 5시께 서울 중구 명동2가89 화교 친목단체인 한국화교 거선당문화회(회장 성운송)회관 신축 공사장을 찾아가 「위법 건축이니 당국에 말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위협, 현장 감독 宋仁鐵씨(30·인성실업대표)로부터 당좌수표로 1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閔씨는 경찰에서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중국인들을 상대로 1천5백만원을 섭외비로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빼앗겨 투자한 1천5백만원을 다시 찾아내려고 이같은 공갈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金成奉씨(21·무직·강동구 마천동 309의23)를 강도 미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16일 서울강남구압구정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세인부를 보고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한뒤 다음날인 17일 상오9시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1동701호 趙哲九씨(28·의사)집에 찾아가 가정부와 같이 집을 보고있던 趙씨 부인 金明姬씨(26)에게 「조선생 술값을 받으러 왔다」며 현관문을 열게 한뒤 거실에 들어가 金부인에게 길이 20cm가량의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다는것.

이때 옆에 있던 가정부 임모양(23)이 놀라 베란다쪽으로 뛰어나가 아래층을 향해 「강도야!」라고 외쳐, 경비원 金모씨(46)가 급히 올라왔는데, 이때 김씨는 金부인을 위협, 「돈 받으러온 술집 종업원」이라고 얘기하도록 한뒤 태연히 경비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층에서 잡혔다.

야구장무대 강매와 폭력

▲서울시경은 지난17일 잠실야구장에 소주등을 몰래 들여다 강매해온 韓致洙씨(25·전과2범·서울종로구창신3동 시민아파트13동202호)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김종철(주거부정)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등은 지난 7월15일 하오2시께 달아난 金씨가 야구장밖으로 내려보낸 나일론 끈에 소주와 오징어등을 묶어 올려보내는 숫법으로 8월30일까지 약 10회에 걸쳐 하루에 소주 2백병, 오징어 2백마리씩을 몰래 들여다 야구장내 행상 아나네들에게 강매했다는것.

이들은 행상 아나네들이 소주와 오징어를 사지않겠다고 거부하면 폭력까지 행사해가며 강매, 1백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구속된 사기 피의자를 무혐의로 해 달라고 1백만원의 뇌물을 주자, 이를 뿌리치고 오히려 뇌물을 준 사람을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한 충남江景경찰서 수사과 李來吉경장(44)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고.

李경장은 지난 16일 하오2시반께 이미 부동산 사기범으로 강경경찰서에 구속된 崔容光씨(41)의 조카인 全鎭範씨(34·전북群山시영산동149)가 「고모부인 崔씨를 무혐의로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백만원을 건네주자 이를 뿌리치고 全씨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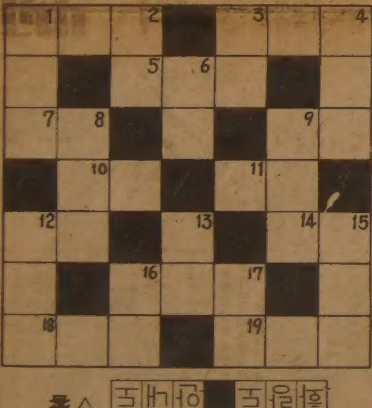
동료경찰관들은 李경장이 강경경찰서 수사과에 지난 3년전부터 근무해 오면서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며 맡은 사건은 항상 양쪽을 공평하게 처리해와 모범경찰관으로 통해왔다고 입을 모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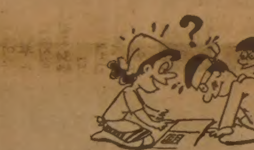
〈정리=黃升漢기자〉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4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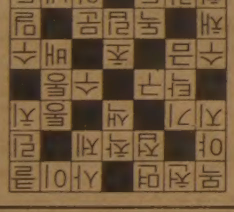
■가로 <힌 트>

1. 독립기념관 건립의 유력한 후보지
3. 뉴델리 아시안 게임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종목
5. 본드
7. 마음이 통하는 친구
9. 지배자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림
10. 아시안 게임 남녀 단체전서 우승을 놓쳤지만 북한을 꺾음
11. 물통
12. 돈을 거두어 들임
14.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뽑아냄
16. 1896년 독립협회가 세운 문
18. 신라 청소년들의 민간 수양단체
19. 관광지나 도시의 길 또는 건물의 위치를 설명한 약도

■세 로

1. 가축을 방목하고 목초를 거두는 들판
2. 사원모집이나 입학시험때 필기시험 다음에…
3. 스승과 제자
4. 복싱경기중 서로 몸을 맞댐
6. 색칠하거나 물감을 들임
8. 맡긴 돈
9. 발동선
12. 채색을 물에 풀어서 그린 서양화
13. 가느다란 풀로 엮어 만든 갓
15. 복숭아
16. 일본과 영토시비
17. 웃어른께 안부를 여쭘

■지난주 퀴즈 정답 <제33회>



숨은그림 찾기

정수동

정수동은 이조 철종때의 사람으로 본이름은 「지윤」이고 「하원」 「만서」 「수동」등의 많은 호를 가지고 있었다.

정수동은 본디 마음씨가 곱고 깨끗하여 그릇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벼슬한 뜻을 버리고 팔도 강산을 유람하며 재치와 유머로써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돌봐주며 그릇된 자들을 골탕먹여 주었다.

어느 날 정수동이 최생원이라는 친구를 찾아 갔다가 그곳 마을 강초시의 비행을 듣고 분개하여 최생원을 시켜 돈 백냥을 빌린뒤 최생원이 죽었다고 소문 냄에 강초시는 사람 죽음보다 돈 백냥만 아까와하더라.

이어 사흘장을 지날 때 최생원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냄에 강초시가 돈 백냥을 받으려 좇아왔으나 염라 대왕을 만나 강초시의 목숨을 50년 연장시키려 돈 5천냥을 썼으니 그것을 갚으라고 최생원이 말함에 그 말에 속은 강초시는 제나이 일흔 살이니 30년만 살아도 좋다하며 3천냥을 내놓았다.

〈작품 중에서〉

구성 장태산

■숨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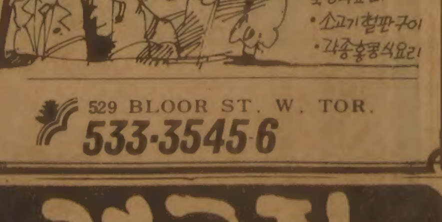
칠면조, 수탉, 나팔, 화살표, 가오리, 피아노, 바이얼린, 대접(그릇), 붓, 여우머리, 나비。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Scarborough Town House $59,900
3베드룸, 4 Appliance Good for starter.
◉Don Mill × Lawrence 방갈로 $129,000
3베드룸+1, $35,000 10¼% Good mortgage.
Shopping, 교통, 학교, 도서관 매우 편리함.
◉Eglinton × Jane 콘도미니움 $64,900
2베드룸+1 Swiming Pool, Tennis Court 있음.
5 Appliance.
◉Sheppard×Victoria Pk. 세미 디테쉬치(좋은 위치).
4베드룸, 4 Appliance, $105,000
◉Markham × Finch 방갈로.
4베드룸+1 가격 $124,900
Lots of extra, Sauna, Fire-Place, Extra large lot.
◉Warden × Sheppard Town Home.
3베드룸, Appliance, Fire-Place, 가격: $84,900
좋은 위치, Financing $44,000 10¼%
◉Scarborough Malvern 가격: $92,900
4베드룸, 방갈로우, Appliance, Draperies.
Only one minute to bus stop.
★ Variety Store
(1) 주매상: $4,500/$6,500/$7,000/$11,000/$14,000
(2) Tuck Shop(새로 오픈한)
주매상: $2,500짜리 두곳 있음.
★ Shopping Mall
(1) Lottario Ticket Shop
연매상 백만불, 렌트: 월 $1,100, 가격: $235,000, $100,000 다운
(2) Key 센타.
연매상 십만불, 렌트: 월 $432, 가격: $105,000.
(3) Fish and Chip
주매상: $7,500~$8,000, 연 순수입 10만불, 가격: 29만 불
15만불 다운 요함.
(4) 고급 남자 양복점: 시내 중심가에 위치
연매상 15만불, 렌트: $1,950, 연 순수입 4만불, 가격: 6만불.
★ Coffee and Sandwich Shop
주매상: $4,000(5일간 운영) 시간: 7시~5시, 가격: $140,000
렌트: $1,360(전기포함) 5년+5년+5년
★ Donut Shop
(1) 주매상: $2,200, 하루12시간 영업, 일요일 닫음, 렌트: $600,
6년+5년 옵션, 연 순수익: $45,000, 가격: $110,000
(2) Donut Castle : Downtown 렌트: 2,700(내년 2월까지)
$3,240(5년), $3,888(5년), 주매상: $8,500
가격: $199,000 13만불 다운요함.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유럽은 지금 스파이 戰爭

최근 폭로된 蘇聯 첩보활동의 內幕

유럽 각국의 매스컴들은 요즘 蘇聯의 스파이활동을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포앵지가 「유엔—소련의 침투」란 기사를 싣고 제네바, 파리, 빈, 뉴욕등지의 유엔 및 그 산하기구에 소련정보수집자들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렉스프레스지도 「소련스파이 활동의 내막」이란 특별기사로 소련 첩보활동의 여러 국면을 들춰내 다시 화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스파이활동에 관한 보도는 이들 프랑스잡지 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스위스의 예브도지, 영·불의 TV, 유럽 각국의 신문들이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

그러나 스파이활동은 소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방 각국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스위스인들 중에는 「저희들도 스파이활동을 하면서 남의 이야기만 쓰고 있다」고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유럽은 스파이전쟁에 돌입한 감을 주고 있다. 요즘 보도에 오르는 소련 스파이활동의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팔레·데·나시옹(萬國宮)

제네바는 유럽속에 흩어져 있는 몇안 되는 세계대화의 광장중 하나이다.

중립국 국제도시인 제네바에는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고, 또 연중무휴로 1년간 수천건의 회의가 열리고 있어, 아침이면 바바리코트에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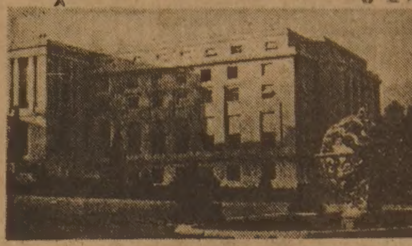
제네바 萬國宮은 국제스파이들 보금자리

제네바중에서도 회의의 센터는 유엔 유럽본부가 들어있는 팔레·데·나시옹이다.

팔레·데·나시옹은 세계평화·군축·인권·경제등을 논의하는 세계대화의 광장이다.

이 곳엔 전세계의 오지 사람도 와서 회의와 토의에 참석한다.

반면 팔레·데·나시옹은 국제스파이의 보금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 따르면 이 건물의 사무실·레스토랑·카페·복도는 오가는 말을 엿듣고, 한가한 대화속에 기밀을 캐고 중요문서를 사진 복사하기에 분망한 정보수집자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군축·인권·경제등 각종 국제회의가 열려 스파이활동의 주요무대가 되고 있는 제네바의 팔레·데·나시옹.

팔레·데·나시옹은 유엔 상설기관 직원·고용원·경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각국외교관·기자·관광객까지 합쳐 매일 수천명이 모여 들끓고 있다.

물론 첩보활동중엔 전화도청을 빼놓을수 없다. 중요협상을 하러온 외교관들 중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전화를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화통의 비밀보장을 확신할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스위스의 한 관리는 수개월전 모국의 한 고위관리가 협상을 하러 스위스에 왔을 때 상대방의 도청을 우려하여 4면이 온통 두꺼운 벽으로 막힌 변소에 핫·라인을 설치, 본국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파리의 이상한 外交官

프랑스주재 소련대사관 수석 참사관 데치트베리코프는 이상한 인물이었다.

그와 같은 급수의 다른 외교관과는 달리 그는 최신 인기상품이나 카페 일장 또는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일도 없었다.

그는 늘 아름다운 주택지구와 불로뉴 숲 사이에 있는 란衛의 회색이 건물벙커속에 틀어앉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없었고 협식을 갖추는 일도 없었으며, 특히 사진 찍히는 일은 한사코 피했다.

데치트베리코프는 일반외교관이 아니었다. 그의 정체는 하수인중의 하나인 솔토모노프란 인물이 프랑스항공산업 비밀을 입수하려다 들통이 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는 KGB학교를 나온뒤 처음 파리에 부임했다가 모스크바로 돌아가 잠시 머문후 1977년3월31일 대사관 수석 참사관 직함을 갖고 다시 파리에 왔다. 그는 하수인들의 정보수집활동을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蘇聯 무역관

소련은 세계 1백여개국에 무역관을 두고 있는데 그중 3분의1은 단 1시간의 무역활동도 하지 않고있다.

파리주재 소련무역관관 인원이 1백여명이나 된다. 이밖에도 경제·문화교류 명목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무역관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련의 물품구매는 계속 줄고있다.

81년 프랑스의 대소 무역적자는 1백20억프랑에 육박했다. 이것은 이상할것이 없다. 그들의 역할이 무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첩관계자들은 여기가 KGB의 소굴로 보고있다.

◇蘇聯 이주민

지난 20년대에 프랑스로 이주해온 소련인수가 부쩍 늘어났다. 20년대는 바로 소련이 이주 소련인들을 대량으로 정치및 군사스파이로 활용하던 때였다.

일부 방첩 전문가들은 오늘날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알렉산드르·진노비에프가 「호모·소비에트쿠스」에서 묘사한 상황과 같다.

프랑스가 소련에 호텔과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수년간 프랑스인과 소련인 사이의 결혼수는 2천5백건으로 늘어났다.

이중 1백쌍은 모스크바 올림픽때 회전 모스크바에 코스모스·호텔을 짓는 동안에 결혼했다. 그러나 이들간의 결혼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흔히 소련여인들은 프랑스인과 결혼한뒤 프랑스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결혼을 다시 하면 성이 바뀌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이들을 식별해내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프랑스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버린것이다.

貿易官·이주민들 활용… 여객기까지 동원

스위스의 헤르베르트·비너잡은 수개월전 「우리나라도 貿易 스파이활동의 영역속에 들어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유럽을 누비고 있는 이상한 트럭의 정체를 두고 한 말이다.

◇유럽을 누비는 트럭들

유럽 특히 서방측 도로에는 국제번호판을 달고 민간복장을 한 장교들이 운전하는 소련트럭들이 많이 운행된다.

이들은 차체에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있어, 도로 넓이, 운하나 강 깊이를 재고 교량의 하중 감당능력을 측정하고 다닌다. 또한 탱크가 부교없이 그대로 건널수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아낸다.

오스트리아군도 작년말 기동연습때 초고성능 도청장치를 갖춘 트럭운전수 여러 명을 체포했고, 독일과 벨기에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스위스에도 이같은 트럭이 출현하고 있다.

◇乘客 없는 여객기

소련의 스파이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작업」상의 실수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10월엔 스위스공군 타이거 제트기 2대가 승객 없는 일류신 여객기 1대를 취리히 비행장에 강제착륙시켰다.

이 여객기는 스위스 상공의 정상 항로를 멀리 벗어나 스위스 육군이 기동연습을 하는 생고타르고원 상공을 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객기는 치외법권 때문에 검색은 간신히 모면했다.

그러나 스위스당국은 스위스주재 소련항공사 지사장 레오니드·바라바노프에게 「강한 정보활동 의혹」을 전달했다. 바라바노프는 재판이나 시끄러운 추방소동을 피하기위해 귀국을 결정했다.

올들어 소련항공사 책임자에게 첩보활동을 공식 항의한 나라는 스위스를 포함, 모두 8개국이다. 그러나 소련항공사 직원들은 외국에 나와 스파이활동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소련인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레닌그라드행 夜間열차

나토 방첩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2만명 정도의 소련인이 산업기술 정보 수집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신문들은 소련이 중요 정보 한 건을 빼내면 50만달러를 제외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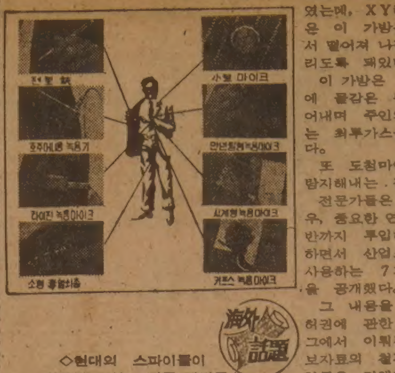
금년초 소련 원자력 평화이용 위원회는 모스크바에서 원자력관계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일본의 히다찌와 도호꾸電力가 파견한 4명의 일본대표가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뒤 이들은 레닌그라드 관광을 위해 야간 급행열차를 탔다. 열차가 정거장을 떠나자마자 이들은 간막이에 살포된 가스를 마시고 잠에 떨어졌다. 잠을 깨보니 여행서류와 비밀서류가 온데 간데 없었다.

이들이 레닌그라드에 도착하지 얼마 후 경찰은 일본대사관에 도둑을 체포했다고 통보해왔다. 이들의 여행서류는 찾았으나 비밀문서는 찾을 길이 없었다. 【제네바=聯合】

파리서 諜報장비展…전술도 公開

海外話題



◇현대의 스파이들이 사용하고있는 각종 장비들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책이 극히 허술한 프랑스기업들을 위한 對첩보 장비전시회가 17일 파리에서 개막, 기발한 각종 對첩보 장비가 전시되고 산업스파이들이 이용하는 전술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국회사들이 대부분인 對첩보 전문회사들은 파리의 한 호텔에서 그들이 극히 허술하다고 판단하는 프랑스회사들의 산업스파이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3일간의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주에는 파리근교 뉴일뤼에서 프랑스기업 사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기업들의 내부보안에 관한 3일간의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프랑스기업들은 이 날의 전시회에서 日本기업들이 경쟁제품의 홍보자료까지 분류하는 고도의 산업첩보시스팀을 갖추고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날 전시회에서는 제임즈·본드의 007식 첩보가방을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선을 보였는데, XY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가방은 소유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돼있다.

이 가방은 훔친 사람의 옷에 물감을 뿌리고 연기를 뿜어내며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최루가스를 살포할수도 있다.

또 도청마이크를 설치하거나 탐지해내는 장비도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중요한 연구비로 예산의 절반까지 투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산업스파이들이 첩보에 사용하는 7가지 주요 전술들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공업특허권에 관한 탐지작전은 헤이그에서 이뤄진다. ▲②제품 홍보자료의 철저한 수집。日本기업들은 경쟁제품을 모든 각도에서 한 사진으로 찍어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분류하는 고도로 발달된 시스팀을 갖추고 있다. ▲③목표가 선정되면 산업스파이들은 「두더지」작전에 들어가는데, 흔히 사진복사를 자유로이 할수 있거나, 쓰레기통 같은것을 뒤질수 있는 직책의 고용인들을 이용한다. ▲④대상기업의 단골 여행사와 접촉, 최고경영진의 동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기업이 달라붙고 있는 시장이 어디인가를 알아내기도 한다. ▲⑤도청장치등으로 경영진의 대화내용 탐지。▲⑥유능한 산업스파이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출입통제가 허술한 기업에 들어가 중역실이나 기타 장소에 도청 마이크를 설치한다. ▲⑦대부분의 기업정책결정자들은 전화 통화의 보안이 믿을만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지 못해 주파수 대변환기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전화 도청탐지장비를 믿어서는 안되며 자동차내 전환도 도청될수 있다. 【AFP=聯合】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시든/너는좋으냐?>

낙엽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지하철소리만 나더라.

조용한 혹새(서울동대문구장안동135의23)

<무엇이다른가했더니>

한국의 시골길옆은 옥수수가 열려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시골길옆은 바나나가 열려 있더라.

강건너(인도네시아 카르만탄에서)

<名 言>

홀아비는 공처가를 부러워하고 공처가는 애처가를 부러워한다.

플레이보이는 영국신사로 행동하고 플레이걸은 요조숙녀로 행동한다.

韓心海(청계천4가 홍일미싱)

★<진짜 알부>자

양계장 주인。

皮博(土月文友會)

지금 웃는중

落書

<노처녀의 값어치>

날이 갈수록 평가절하에다 감가상각, 그리고, 특히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

깜상(한국낙서회)

<감시 잘해야지>

부동산투기 못하게된 복부인들 혹시 황새 잡으러 나설까봐 걱정이다。

때때(한국낙서회)

<요즘의 友情>

군입대, 제대, 결혼, 아기 백일·돌때만 긴급연락하고 그후는 감감 무소식。

한춘기(신림본동모범예비군)

<불확실성시대의 일기예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지방은 구름이 끼겠고 곳에 따라 흐리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읍니다。

正三品(土月文友會부산청년모임준비위원장)

<앞으로 새로 나올 TV문학관>

開浦로 가는 길。

도사(한국낙서회·서울강동구마천2동349의1)

◇알 림

☆이번주의 최우수작은 <진짜 알부자>입니다。皮博씨! 축하합니다。<시든 너는 좋으냐>도 우수작이었읍니다。

이번주의 상품도 용산·레저장비전문에 이커인 한라스포츠(☎0925)가 제공하는 고급 코헤르입니다。

☆독자만화페이지의 신설로 낙서란이 넓어졌읍니다。신인의 작품도 대 환영합니다。<久>

콩트

택시안의 세계

첫손님으로 예쁜 아가씨를 모시고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달리는데 10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

어떤 빌어먹을 운전기사가 교대시간에 타이어펑크 난 것을 그대로 놔둔채 줄행랑을 친 모양이다.

아가씨는 출근시간이 바쁘다고 타이어 교환시간 5분을 못참아 딴 차를 잡아타고 휭하니 가버린다.

차를 되돌려 다시 변두리로 들어서니 코흘리개 국민학생이 고사리 손을 든다.

손바닥을 폈는데 손가락 하나만 까닥거리는 것이 좀 앙증스럽게 보였지만 어쨌든 승객은 왕이니까하는 생각에 태웠다.

합승손님이라도 더 태울까하고 중도에 차를 세우려하니 『아저씨 바빠요』라는 어린이답지 않은 매서운 목소리다.

이쯤되면 오늘 하루의 일진은 뻔하다.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동작도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어서 잘 차려입은 사람이라도 동작을 보면 그 사람의 교양정도를 알수가 있다.

차를 세울때 가운데 손가락을 펴보이면 영국신사다운 멋스러움이 있으나 집게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으로 차를 세우는것은 비신사적 스타일.

겨울에 흔히 있는 일인데 숫제 발로 차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택시승객중에서 가장 불쾌한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

일부러 차를 심하게 몰아 짐짝취급하듯 흔들리게 하고 인삿말조차 건네지 않게 마련이다.

개를 부를 때도 손짓을 하는데 과학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발짓으로 부른다는것은 죄악이나 다름없다.

택시안의 세계

오전에는 대체로 조용한 택시안의 세계가 오후가 되면 소란해지면서 차츰 세상밖의 일들이 좁은 공간으로 밀착되어 들어와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오간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얘기는 주로 돈과 관련된것。돈때문에 큰집과 작은집의 집안싸움이 일어나고 친구간에 우정이 깨지고 순간적인 살인을 하고 동반자살을 하고 목을 맨 얘기등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중년층에 많은 남녀간의 불륜관계다。간혹 밝은 대낮에 남녀가 호텔이나 여관앞에 내리게 되면 한참동안 몸이 근질 근질해 온다.

실제로 이런 끈적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되면 진종일 입맛이 쓰다.

밤이 으슥해지면 별일이 다 생긴다。어떤 승객은 천원짜리 지폐를 내놓고는 5천원짜리로 착각, 거스름돈을 내노라고 어거지를 쓰기도 한다.

언젠가는 집앞에 차를 세우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무소식이어서 하는수없어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런 사람 없단다。화가 나서 의심이 가는 어느 방문을 열어보니 신혼부부 한쌍이 막 자리에 들어갈 찰나다.

결국 온 동네가 떠들썩한 소동만 일으키고 말았다.

밤늦은 시간엔 주점가에서는 흔히 고주망태가 된 남자와 접대부 아가씨를 태우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백미러로 자기들의 얼굴이 보일까봐 실내등을 꺼버리고는 원색적인 대화와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택시안의 꼴불견 제1위에 속하는 족속들이다.

김상현(대구시 서구 비산동4구 291의36)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FIVE MORE HOURS TO GO.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지리함이란 이루 말할수가 없다.

말음관계로 필자도 자주 고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Chicago에서 Narita까지약11시간。 Narita 공항에서 약2시간을 쉰후 Gim-po까지 2시간, 모두 13시간동안비행기안에 있게 된다。

기내에서 잠을 잘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는 영화를 보거나 옆 좌석에 앉은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승무원들에게 「얼마나 더 가야하는가?」 How many more hours until we land? 라고 자주 묻게된다。

이런경우 Five more hours to go. 라고 대답했다면 「5시간 더 가셔야 합니다」는 뜻이 된다。

「그 책을 다 읽었어요?」 Have you finished that book yet? 라는 질문에 「다 읽어 갑니다 3page 남았어요」 라고 한다면 Almost. I've only got three more pages to go. 라고 할수있다。 제대할 날짜만을세고 있는 병사가 I've only got seventeen days to go. 라고 말했다면 「17일만 지내면 제대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일 것이다。

예정된 숫자에서 일부가 끝난 경우, 예를 들어 10과를 해야 되는데 「7과가 끝나고 3과가 남았다」 고 할때는 Seven down three to go. 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보통의문문에는 yet을 사용치 않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곧잘 쓴다。

그리고 What, Why, How 같은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일 경우도 말끝을 올리지않는 것으로 알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상황에 따라 끝을 올리기도 한다。

A : Stewardess, may I ask you a question?
B : Certainly. What do you want to know?
A : How many more hours until we land in Seoul?
B : Oh, we have about five more hours to go.
A : Thank you, and may I have some coffee?
B : Certainly, and we'll serve dinner in another hour.
A : 스튜어디스, 물어볼게있는데요。
B : 물론이죠。무엇을알고싶으세요?
A : 몇시간더가면 서울에착륙합니까?
B : 5시간 쯤 더 가면 돼요。
A : 감사합니다。커피좀 주시겠어요?
B : 물론이죠。그리고 한 시간후면 저녁식사가 나올겁니다。
A : Hi, John. What are you reading?
B : War and Peace.
A : That's a really long book.
B : Yes, but I'm almost finished with it.
A : How much more do you have to read?
B : Oh, I've only got ten more pages to go.
A : 잔, 무엇을 읽고있니?
B : 전쟁과 평화。
A : 그건 정말 장편소설이야。
B : 그럼, 그런데 거의 다 읽었어。
A : 얼마나 더 읽으면 되니?
B : 10페이지만 더 읽으면돼。

land : 착륙하다。 take off는「이륙하다」. make it : 해내다。 성공하다。 turn back : 되돌아 가다。

Ex. It's too late to turn back now. 지금 되돌아 가기에는 너무늦었어。 lap : (경기에서)한 바퀴. turn in : (서류, 시험지등을)제출하다。(= submit, hand in).

Ex. You must turn in your application in advance. 지원서를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입처 :
B. C. MIN
1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toefl 講座

①Diamond-cutting is one of the most skilled and「best」 paid crafts in the world.
(A)most highly (B)most notably (C)most astonishingly (D)most conspicuously
<note>crafts (숙련된기술) 를 수식하는 paid(adj)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paid 나 price 는 높다(high) 낮다(low)로 표시하기 때문에 정답 (A)

toefl 講座

②In fifteenth century England, cloth that measured one yard in width was called straitcloth. 「Double widths」of this same material, called broadcloth, were—
(A)two yards wide
(B)used for sails
(C)made into suits
(D)cut into strips
<note> 「Double widths」 of this same material에서 「…」 것이 hint 정답(A)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103

지난 줄거리

길포 멘치형은 춘찬의 일본행을 은근히 반대했다. 그러나 춘찬은 굽히지 않는다. 춘삼이형도 일본의 밀매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거대하며 보복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다혜가 프랑스 파리로 유학가는 날 아침에 춘찬은 비참한 생각에 빠진다. 공항대합실에서 마주친 다혜네 식구들과 어색한 재회를 한다.

어쩌면 재적은 기분이었다. 오늘의 주인공이 다혜인데도 내가 나타나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내게 쏠렸다. 다혜의 파리 유학이란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된 것도 나 때문이란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집갈 나이의 다혜가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다혜네 식구들을 긴장시켰다.

공항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다혜는 한사코 나와 달라고 했다. 내가 공항에 나오지 않으면 완고한 식구들이 승리감을 느낄 것이고 그녀 자신이 더 참담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사랑했다면 더 당당하게 공항 대합실에서 이별이란 걸 느껴 보자고도 했다. 우리들의 사랑을 거부하는 가족들에게 뜨끔한 기분을 남겨주자는 것이었다.

『오기로라도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 식구들에게 소름 끼치도록 사랑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다혜가 며칠전 부터 강조한 말이었다. 비행기 출발시간보다 한시간쯤 일찍 나가게될 다혜와 나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나 먼저 들어갈까?』

다혜가 불편한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 다혜가 눈을 곱게 흘겼다.

『오기도 없어?』

『왜 없겠니. 너희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싫어서 그래. 내가 구걸하러온 놈도 아니고…큰 죄인도 아닌데 너무들 하잖아.』

그건 사실이었다. 나를 두려운듯, 또는 사랑을 구걸하는 못난놈 처다보듯했다.

『얘야, 일찍 들어가거라.』

다혜 이모가 한 말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공항대합실에 있는게 불편한 모양이었다.

『시간 넉넉해요, 이모. 얘기 조금하고 나갈께요. 내가 미우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다혜가 모진 소리를 했다.

『얘는…。』

다혜 이모가 얼른 자리를 피했다. 다혜의 친구들도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말들어주려는 속셈인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불안해서 저러다니까. 찬이가 힘으로 저지시키거나 나를 납치해 갈까봐 저렇게 안달을 하는 거야.』

다혜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사실대로 잘 봤어.』

『날 납치하고 싶어?』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이었다. 똑같이 납치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릴까 궁리만 했지.』

『정말 납치할 거야?』

『그럼 안되니?』

『지금 난 찬이한테 납치당하고 싶어. 공부하기도 싫고 이렇게 반강제로 헤어지는 것도 싫고。』

『그럼 납치하래?』

『그랬으면 좋겠어。난 떠나기 싫어. 찬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 내가 파리유학 결정했다면 당연히 나를 납치해서 잠적해 버릴줄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러 온 사람한테서 자꾸 먹혀 간다니…。』

『제길… 넌 내 말을 너무 몰라. 난 패배자처럼 매일 밤 복수를 꿈꿨어. 납치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어.』

나는 다혜가 떠난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할 줄 몰랐다. 더구나 결혼 상대자로 실격자가 되어버린 신세였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 찬이 정도면 날 납치하는 건 쉽잖아.』

『그러고 싶어. 그러나 난 결코 납치하진 않겠어.』

『왜?』

다혜는 도전하듯 물었다.

『정말 사랑하니까.』

『알아.』

다혜 표정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글썽였다. 마음이 여린 소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힘내. 내가 찾아갈테니까.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테니까.』

나는 어울리지 않게 이런 말을 해버렸다. 다혜가 피식 웃었다.

『기억나니? 페드라. 죽어도 좋아라는 거 말야. 나랑 배 웃으며 손을 흔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어른들 생각처럼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나 하는 부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납치 당하길 바래.』

사랑이라도 내 맘대로 못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다혜가 시큰하도록 짜릿한 말을 했다. 그건 그녀의 진실일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오기로라도 납치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녀가 떠나고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어낼지 걱정이었다.

『우리 한텐 오기가 있잖니. 우린 참아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할 힘도 길러질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혜가 아쉬운 듯 말꼬리를 흐렸다.

『뭔데?』

『찬이가 하잔는대로 해버릴 걸 그랬어. 내가 무슨 맘 먹고 그랬는지 몰라. 그까짓 육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말야.』

『이미 글렀어.』

『지금이라도 둘이 도망갈 수 없을까?』

『그것보다 더 귀중한걸 우린 알고 헤어지잖아.』

『그건 그래.』

다혜가 왠지 추렷해 보였다.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우린 결국 이렇게 만들바에야 어째서 만나게 하셨읍니까? 이렇게 되길 바라셨죠. 그리고 즐기고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한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린 끝까지 헤쳐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장난에 놀아나진 않을거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출구로 모여들었다. 나와 다혜는 먼 빛으로 손을 흔들었다. 다혜네 식구들이 모여서 다혜와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있었다.

다혜는 손을 흔들고 걸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리고 뛰었다.

다혜는 울고 있었다. 눈물 가득 핀 눈빛이 너무나 안스러워 보였다.

다혜는 많은 사람을 뚫고 내게로 뛰어왔다. 나를 얼싸 안았다. 뜨거운 입술로 나를 끌어당겼다. 할짤한 그녀의 눈물이 입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 그저 길고 뜨거운 입맞춤에만 우리의 생애를 건 것처럼 들떠 있었다.

『사랑해. 우린 이길 거야.』

다혜가 먼저 손을 풀었다.

『그래. 우린 이기고 말 거야.』

『사랑한다고 큰소리로 큰소리로 말해줘.』

『그래.』

『갈께. 큰소리로 나갈 때 말해줘.』

『알았어.』

그녀는 바닥에 팽개쳤던 가방을 들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다시 출구로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혜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다혜네 식구들은 나를 원망하는 눈초리였다.

다혜가 출구를 빠져나가 자동문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다.

나는 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한다。사랑해。』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공항 대합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 보았다.

『어떤 놈이 뭐라든 사랑할 거다!』

또 악을 바라바라 썼다. 다혜가 손을 흔들고 자동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갑자기 악이 오르기 시작했다.

『사랑한다아! 사랑하고 말 거다아! 어떤 놈이 뭐라든 넌 내꺼다아! 사랑한다아!』

아까보다 더 악을 써댔다. 다혜네 식구들이 재빨리 흩어졌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물러났다.

『사랑한다아. 사랑하는 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냐아! 젊은 놈은 사랑이라도 하자아! 사랑한다아!』

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리지 않고 악을 쓰며 내뱉었다. 뭐나 큰소리로 악을 쓰니까 구경꾼들도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다.

제복 입은 사내가 다가왔다.

『뭐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사랑한 여자가 떠났읍니다. 그래서 악 좀 썼읍니다. 그녀의 부모들 들으라고 더 악쓴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떠들면 어쩝니까?』

『사랑이라도 내 맘대로 못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건 잘했소. 그러나 여긴 국제공항입니다. 나가서 실컷 소리지르시오.』

『이제 그만갑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괜히 눈물이 솟구치는걸 느꼈다.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왔다. 다혜네 식구들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다혜 친구 두명이 서성거리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뛰었다.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차가운 밤하늘에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주차장에 앉아서 아홉시 이십분이 넘도록 담배만 연신 피우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 다혜를 훔쳐올까? 소란해지겠지. 그럼… 그런 생각 뿐이었다.

아홉시 이십분을 지나 아홉시 반도 넘었다. 나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무섭게 흩뜬 눈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어둡고 차가운 공항을 훌쩍 뒤돌아보며 내 젊음까지도 송두리째 놓아두고 온 기분이었다. 다혜는 내 축소된 분신이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만큼 내 가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여인이었다.

다혜.

처절하고 애절하게 불러보고 싶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번도 여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소녀로 남아 있으려고 몸부림 치는것으로 사랑을 남긴 여인이었다.

다혜.

그녀는 떠났다. 기약은 했지만 그녀의 동경과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로 이별의 고통을 흘려놓고 떠났다. 프랑스 파리가 어떤 곳인지 나도 그녀도 잘 알지 못한다. 그녀의 영어실력은 인정하지만 그녀의 불어실력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자꾸 뇌리를 건드리곤 했다.

그녀의 의지라면 무엇이든 해낼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헤어지며 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육체를 왜 벗어던지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했다.

떠나기 전날 밤까지도 그녀는 옷벗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끝까지 육체를 지킬 수 있는 여자라는 게 내 솔직한 즐거움인지도 모른다.

쾌속으로 달렸다. 희미한 가로등과 차량의 불빛 속을 비집고 달렸다. 어둠 저쪽에 다혜가 서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구 달렸다.

뒤를 흘낏 쳐다보았다. 백미러 속으로 검은 승용차 한대가 쫓아왔다.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짐작할 수 없는 차형이었다. 속력을 늦춰 신호대기 앞에 서서 유심히 뒤차를 살폈다. 세명의 사내들이 낯선 일본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복장이나 머리형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구석자리에 하얀 모자를 쓴 여인도 저감에 일본인같았다. 브레이크등의 붉은 빛 때문에 확실하게 생김새나 표정을 적어낼 순 없지만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춘삼이형과 멘치형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일본애들의 보복작전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애들의 작전이 어떤것일까? 점잖게 협상을 제의해올까? 일본애들의 속성은 강한 자에겐 비굴할을 감수하고서라도 실리있는 협상을 하지만 약한 자에겐 무자비한 보복만 갚아나간다고 들었다.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뒤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듯 따라붙는 기세이 아니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그 뒤에 애들이 따라붙게 만들걸。나는 은근히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고 눈치채게 내달릴순 없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총질까지 할 애들은 아닌것 같았다. 우리나라 실정을 안기때문에 그런식의 무모한 앙갚음을 하진 않을것 같았다.

어쨌든 기분은 나빴다. 차의 방향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온주 누나네 집으로 방향을 잡아 괜히 집안이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하든 뒤쫓아 오도록 유도하여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결판을 내는게 좋을 것 같았다.

성산대교를 건너 시내 쪽으로 파고 들어갔다. 뒤차는 조금 바싹 따라붙는것 같았다. 언뜻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 눈이 비교적 많은 H호텔이었다.

호텔 마당으로 차를 회전시켜 세웠다. 멀찍이 검은 승용차가 들어서는 걸 확인하고 코피 숍으로 들어갔다. 창가 쪽에서 비교적 입구쪽이 잘 보이도록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근처에 있는 애들을 불러들여 일본애들의 동태를 관찰하고 싶었다.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차 한잔을 다 마시도록 아무도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이 호텔에서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 안에 무선전화기라도 있다면 좋을 것 같았다. 대책없이 호텔을 나가긴 싫었다. 일본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졌다.

정정당당하게 판을 벌여만 준다면 두려울 게 없지만 보통 일본 애들답게 치사한 방법으로 나온다면 내가 먼저 기선을 잡히게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상대의 반응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모습을 잔뜩 질투품고 쳐다봤어요

깔끔하고 예쁜 여자가 걸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흰 모자를 보는 순간 일본애들의 행동이 개시되었다는 어떤 두려움과 부딪쳐보는 흥분이 나를 감싸고 돌았다. 하얀 털모자의 여자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창가를 쳐다보며 관심이 없는 척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스스럼 없이 인사를 하며 옆자리에 앉았다.

『누구시죠?』

나는 주위를 매섭게 훑어보고 물었다.

『어머 절 모르세요?』

낯이 그렇게 설지않아 보였지만 기억엔 없었다. 잘 생긴 여자여서 누구에게나 한번쯤 어디선가 스쳐지났던 여자라고 착각할 만했다. 크지 않은 몸매와 밝은 웃음이 친근감을 주었다.

『장춘찬씨 아니세요?』

『그런데요.』

『어머 저 다혜 친구에요.』

내가 한껏 긴장한 탓인지 그녀를 어디서 만났었는지 기억할수가 없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나요?』

『공항에서요.』

『그 전에는요?』

『말만 많이 들었죠. 다혜한테서. 오늘도 멀찍이서 두 사람의 뜨거운 모습을 잔뜩 질투품고 쳐다봤죠.』

『이름이…。』

『술아예요.』

『김술아요?』

『예.』

『이름은 들었읍니다. 한반였다죠?』

『다혜가 그 정도밖에 얘기 안해요?』

『아뇨. 어떤 병원엔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도 알죠.』

『다혜를 사랑하세요?』

『그럴 겁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우린 보다시피 헤어졌읍니다.』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슬픈 척이라도 해얄 게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제가 술 사드릴까요?』

『왜요?』

『다혜 친구니까요.』

『술 사주라고 합디까?』

『아뇨. 이건 순전히 제 작상에요. 슬픈 남자에게 술을 사는 여자가 되가. 뭐 그런 거죠.』

김술아란 여자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었다. 다혜 입에서 어쩌다 학교 다닐때 동료들 얘기가 나오면 끼여있을 정도였지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다만 학생 때 빼어난 인물값을 하느라고 조금 시끄럽게 학생시절을 보냈다는 것과 어떤 의사와 연애 하다 헤어져 복수극을 꾸미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로 그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 대면한 술아가 내게 술을 사겠다고 자청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일본애들의 접근 대상자가 될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혜와 무언의 경쟁자로 내 파멸을 구경하고 싶은 잠재적 욕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차에서 본 그 하얀 모자가 아니었다면 다혜의 유학길을 배웅하고 우연히 마주친 다혜의 친구의 호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난 술이 조금 세데요.』

『나도 보통내기는 아닌란 소릴 들어요.』

나는 술아라는 여자의 뱃심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뒤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을 일본애들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머리채를 잡아 앉히고 싶었다.

그러나 내 예민한 느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다. 거리낌없고 밝은 표정 속엔 그런 흉계가 도사리고 있을것 같지 않았다. 술아란 여자가 대학가에서 미모를 자랑하며 시끄럽게 했을만한 여자라는 걸 나는 인정하고 싶었다.

『좋은 데가 있어요.』

그녀의 티없는 표정을 읽으며 나는 웃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더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좋은 사람 구함. 주유소(GAIN) 경험자는 우대함.
Full Time 또는 주말 Part Time
877 Dundas St.W(Bathurst 서쪽 300m)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이즈링톤 × 알비온)
전화 : 743–2398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웨이트레스와 Kitchen Helper구함. 5304 Yonge St.
(South of Finch) 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 826–7676 Koto Japanese Rest.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Part Time 남자 헬퍼(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동쪽 끝.
전화: 282–5632

미시사가 거주 젊은 여자분 구함. 1983년1월4일부터 7시부터 8시간. 23 Helene St. Missi Port Credit 역전. Century Burgers
희망자 방문요 5시 이후

개스 스테이션 풀타임 매니저 구함.
(자동차 유류판매 ONLY)
전화 : 1–852–7561

2층에 2 Bed–room달린 식당임(Chair 24개, Stool 9개)
지하실및 화장실 2개. 맡아서 운영하실분
전화 : 691–6768 Mr. 김

담배 안피우며 정결한 여자 룸메이트 구함.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고음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2,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배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 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4,000불 이상, 월세가 확정된 7년 리스.
전화 : 421–1014 Mrs. 안

건강이 나쁜 관계로 급히 우체국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시민권자나 이민자라야 함. 주 Net $550(경비제외하고)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691–5297 Mr. Gilber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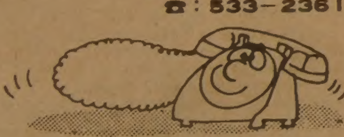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캄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현재 변호사 사무실 2층 렌트합니다.
850 Sq. Ft. 484 Bloor St.W.
전화 : 638–0782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에 600 Sq.ft.
사무실 렌트 합니다.
410 Dundas St. E. 전화 : 537–3171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6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현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터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태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국비데오센타

678 BLOOR ST. ✆ 532-0210 B) 826-5118 R)

손 병 헌

새로운 비데오 테잎 대량입하

작곡가 박시춘선생 50주년 작곡앨범.
* 세자매 어머니등

- 고교야구결승, 서울국제탁구대회 ⊙친구야 친구 ⊙전택보
- 외국영화 ⊙코리아환상곡 ⊙천생연분

연말 스페샬

ALL 비데오 CARTRIDGE 20% OFF

$244.-

ATARI

가족을 위한 게임머신 스페샬

TH 1010 Cordless Extension Phone

◎기다릴때 음악이 나옵니다.

(WITH NO. 11 AND 22 MEMORY DIALER AND ♪ MELODY ON HOLD)